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김 주 의

#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

지도교수 김 병 조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김 주 의

김주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김 봉 환 (인)

부위원장 최 창 용 (인)

위 원 김 병 조 (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중 2017년(7차 조사)부터 2019년(9차 조사)까지 총 3개년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독립변수 중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통계적으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가족지지는 친구지지보다 삶의 만족도에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는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순수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는 가족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조절효과를 지니며,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조절효과를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완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다는 경향이 다문화청소년에게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인 가정과 학교는 직접적인 접촉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준다. 셋째, 다문화가족정책의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서 정책목표 설정 등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주요어 : 다문화청소년,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 다문화청소년패널**

**학 번 : 2021-27614**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 3

제 2 장 이론적 논의 ····· 5
제 1 절 다문화가정,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정책 ····· 5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 ····· 5
2. 다문화청소년 ····· 6
3. 다문화정책 ····· 9
제 2 절 삶의 만족도 ····· 15
1. 삶의 만족도의 개념 ····· 15
2.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 16
3. 생태체계적 관점 ····· 18
4. 생태체계적 관점을 통한 변수 설정 ····· 20
제 3 절 사회적 지지 ····· 22
1. 가족지지 ····· 23
2. 친구지지 ····· 24
3. 교사지지 ····· 24
제 4 절 욕구위계이론 ····· 26
제 5 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 29
1.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 29
2. 다문화가족정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 31
3.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 ····· 32

제 3 장 연구 설계 ····· 34
제 1 절 연구 모형 설정 ····· 34
제 2 절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 35
1. 연구 대상 ····· 35
2. 자료 수집 ····· 36
3. 연구 대상의 특성 ····· 37
제 3 절 변수의 측정 ····· 39
1.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 41
2. 독립변수: 사회적 지지-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 41
3. 조절변수: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 ····· 42
4. 통제변수 ····· 42
제 4 절 분석방법 ····· 44

제 4 장 연구 결과 ····· 45
제 1 절 기초통계 ····· 45
1. T차 조사(2017년) ····· 45
2. T+1차 조사(2018년) ····· 46
3. T+2차 조사(2019년) ····· 47
4. 패널자료 (3개년도) ····· 49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 51
1. T차 조사(2017년) ····· 51
2. T+1차 조사(2018년) ····· 53
3. T+2차 조사(2019년) ····· 55
4. 불균형 패널 (N = 1,201*3) ····· 57
5. 균형 패널 (N = 1,138*3) ····· 59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 61
1. T차 조사(2017년) ····· 62
2. T+1차 조사(2018년) ····· 64
3. T+2차 조사(2019년) ····· 66
4. 불균형 패널 (N = 1,201*3) ····· 68
5. 균형 패널 (N = 1,138*3) ····· 70
제 4 절 패널고정효과 ····· 72

제 5 장 논 의 ····· 76
제 1 절 분석 결과 요약 및 해석 ····· 76
제 2 절 이론적 함의 ····· 80
제 3 절 실천적 함의 ····· 83
제 4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 ····· 85
제 5 절 결론 ····· 87

참고문헌 ····· 89
Abstract ····· 101

# 표 목 차

[표 2-1] 다문화청소년의 변화 추이 ····· 7
[표 2-2]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구분 ····· 8
[표 2-3] 제1~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변화 과정 ····· 10
[표 2-4]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정책의 시기별 현황 ····· 12
[표 2-5] 삶의 만족도의 개념 정의 ····· 15
[표 3-1] 설문응답자의 특성 ····· 38
[표 3-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문항 ····· 39
[표 3-3] 연구의 분석방법 ····· 44
[표 4-1] 2017년 T차 조사의 기술통계 ····· 45
[표 4-2] 2018년 T+1차 조사의 기술통계 ····· 47
[표 4-3] 2019년 T+2차 조사의 기술통계 ····· 48
[표 4-4] 불균형 패널과 균형 패널의 기술통계 ····· 49
[표 4-5] T차(2017년)의 변수 간 상관관계 ····· 52
[표 4-6] T+1차(2018년)의 변수 간 상관관계 ····· 54
[표 4-7] T+2차(2019년)의 변수 간 상관관계 ····· 56
[표 4-8] 불균형 패널의 변수 간 상관관계 ····· 58
[표 4-9] 균형 패널의 변수 간 상관관계 ····· 60
[표 4-10] 다중공선성 결과 ····· 62
[표 4-11] T차 조사(2017년)의 회귀분석 결과 ····· 63
[표 4-12] T+1차 조사(2018년)의 회귀분석 결과 ····· 65
[표 4-13] T+2차 조사(2019년)의 회귀분석 결과 ····· 67
[표 4-14] 불균형 패널 조사의 회귀분석 결과 ····· 69
[표 4-15] 균형 패널 조사의 회귀분석 결과 ····· 71
[표 4-16] 조절효과 분석 결과 ····· 73
[표 5-1] 연도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 76
[표 5-2] 패널 자료의 분석 결과 ····· 77

# 그 림 목 차

[그림 2-1] 생태체계이론의 수준 ····· 18
[그림 2-2] Maslow의 욕구 5단계 ····· 26
[그림 3-1] 연구모형 ····· 34
[그림 4-1]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 ···· 75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0년대 말에 이르면서 한국사회는 국제화 및 개방화와 더불어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이로 인한 초국적 이주 노동자의 유입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유봉애 & 옥경희, 2013). 또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수가 늘어났고, '다문화가정'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수는 2013년 6,529,196명, 2017년 5,773,998명, 2021년 5,374,515명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반해 다문화학생의 수는 2013년 55,780명, 2017년 109,387명, 2021년 전년(147,378명) 대비 8.6% 증가한 160,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를 차지한다(교육부, 2021). 다문화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우리나라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인종·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청소년이 바람직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나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사회통합정책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 주요 연구 대상은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자녀'이다. 다문화 1세대는 결혼을 통해 국내에 정주하는 여성인 '결혼이주여성'이며, 다문화 2세대는 그들의 자녀 세대로 구분된다. 다문화 1세대는 공통적으로 한국인과 인종, 언어, 외모 등 차이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2세대에서는 가정교육, 학교적응 또는 정체성 형성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류동, 2021). 특히 다문화 2세대의 경우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인 중·고등학생 시기에 극심한 정체성 변화를 보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변화를 가장 많이 겪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곽삼근, 조혜선, &

윤혜경, 2005). 어린 시절에 느낀 행복감이 성인이 된 후 개인의 삶의 만족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Yang, 2008). 즉,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삶의 만족도는 이후 성인기의 삶의 질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양계민, 강경균, & 김주영, 2017).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의 정책 프로그램 참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습활동, 학교성적, 국가정체성,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연보라, 2017; 정용호, 2017; 윤예린 & 오범호 2020; 조승연, 2021).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된 효과를 다루지 않은 점, 분석대상이 주로 초·중학생으로 제한된 점, 다문화청소년 전체 집단의 평균적 효과만을 다루고 있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가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제7차, 제8차, 제9차 총 3개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생태체계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하위차원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고,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19세의 다문화청소년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이나 직장으로 가는 일련의 과정들은 개인의 사회화에 중요한 전환기가 된다(송연주, 김대현, & 이상수, 2015).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은 사회적·심리적·학업적으로 다른 청소년 시기보다 더 큰 부담을 경험하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관계를 앞두고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은 편이다(서희정 & 윤명희, 2018).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와 고등학교 시기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대체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김소영 & 윤기봉, 2016). 즉, 같은 청소년 시기여도 연령에 따라 관련 요인들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화 양상의 뚜렷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교생활적응, 부모의 애착과 양육태도 등 미시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안선정, 이현철, & 임지영, 2013; 석말숙 & 구용근, 2015; 서희정 & 윤명희, 2018; 이윤정, 2019). 이처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기존연구들(윤기봉, 2018; 안혜진, 2019; 김평화 & 윤혜미, 2020; 박동진 & 김송미, 2021)은 가정환경, 학업스트레스, 우울과 비행 등 부정적 요소가 독립변수로 사용하거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횡단적 측면 등을 다루었다.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신체적·심리적 발달 특성으로 종단적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종단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삶의 만족도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며 어떠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경험적 연구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청소년에 관한 종단연구와 해당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청소년 문제를 다룬 논문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사 당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 후인 고등학교 1학년(제7차년도)과 고등학교 2학년(제8차년도), 그리고 새로운 전환기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제9차년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제 2 장 이론적 논의

## 제 1 절 다문화사회,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정책

###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

‘다문화’라는 용어는 1970년대 캐나다에서 처음 사용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개념으로 특정 사회집단 내에 민족적·인종적·종교적·문화적 정체성을 달리하는 집단들이 공존하는 현상을 말한다(이준규, 2012). 또한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 자체로써 사회 구성을 목표로 하는 이념적 지향을 의미하는 다의적 개념으로 사용된다(김이선, 황정미 & 이진영, 2007).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다문화’ 관련 용어는 정책 형성과정에서 전략적 가치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식화되었다(김이선, 2010). 이러한 과정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사회 내에 특정 집단을 범주화하여 서열을 형성하게끔 하여 의식적·무의식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다(이민경, 2010). 즉,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라는 용어의 사용은 정책 과정에서 가치판단이 개입되며 ‘구분짓기’의 프레임을 형성해오고 있다.

한편 다문화사회의 개념 역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황정미(2007)는 지배집단의 동질문화에 다수의 소수문화가 포함되는 사회로의 변화, 소수 종족의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갖게 되는 사회로의 변화, 그리고 이주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 증가로의 변화라고 본다. 조호대(2012)는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며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열(2014)은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새롭게 형성된 개념으로 한 국가 내에 공존하고 있는 인종적·종교적·민족적 정체성을 초월하는 사회라고 말한다. 박종관(2015)은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

이 함께 어우러져 상호 간에 사회적 차별 없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취득하는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라고 하였다.

다문화사회의 개념을 종합하면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을 보이는 사회를 말한다. 즉, 이질적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공존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사회는 이민자들의 정체성 유지와 소수집단의 문화 인정 등을 강조하는 사회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다민족, 다문화로 구성된 사회 내 인식과 권리 등의 적극적 요구가 함축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단지 인구적 구성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다차원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정하나, 2016).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족주의'와 '우리'라는 단일집단 의식이 강한 사회이기에 구성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인식이 지배적이지 않다. 오히려 배타적 동화주의(assimilationism) 인식이 팽배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중혁, 황기식, & 송문석, 2019).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문화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나아가 다문화사회의 강점인 다양성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2.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가정형태인 다문화가정을 공간적 배경으로 성장한 청소년들이다. 다문화가정은 '가정'이라는 한 테두리에 다양한 언어와 생활, 교육, 사고방식, 관습 및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공존하는 가정의 모습을 말한다(오경화, 2011). 우리나라는 최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이주로 '이중문화가정', '다문화가족' 등 용어가 사용되어왔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인과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가정 또한 다른 문화에서 살다가 한국문화에 적응하여 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에 포함된다(양계민 외, 2011). 또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가 이혼을 하고 외국인과 재혼을 함으로써 외국인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 외국인 여성이 본국에 자녀를 두고 한국남성과 결혼을 한 후 자녀를 입양하는 형식으로 그 자녀를 우리나라로 데려온 경우 등의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형성되고 있다(양계민 외, 2011).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고 있다. 다음 [표 2-1]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다문화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9%에서 2021년 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증가하는데 반하여 전체 청소년의 수는 줄어드는데 기인한다(교육부, 2022).

[표 2-1] 다문화청소년의 변화 추이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다문화청소년(명) | 109,387 | 122,212 | 137,225 | 147,378 | 160,056 |
| 전체 학생(명) | 5,773,998 | 5,644,725 | 5,502,881 | 5,397,468 | 5,374,515 |
| 다문화청소년비율(%) | 1.9 | 2.2 | 2.5 | 2.7 | 3 |

출처: 교육부(2021)

이처럼 증가하는 다문화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도 다양하다. 다문화청소년 이외에도 다문화가정자녀,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 자녀, 이주배경자녀 등 유사한 의미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자녀, 외국에서 출생한 국제결혼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등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양계민, 장윤선, &

정윤미, 2020).

본 연구에서는 양계민, 강경균, & 김주영(2017)의 연구에서 정의한 다음 [표 2-2]의 '다문화청소년'의 정의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은 체류자격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을 지닌 만 9세에서 만 24세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을 한다(양계민, 강경균, & 김주영, 2017).

[표 2-2]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구분

| | 한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 | 외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 |
|---|---|---|
| 국내출생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
| 국외출생 |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

출처: 양계민, 강경균, & 김주영(2017)

[표 2-2]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은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라 네 가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내에서 출생한 한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의 자녀를 의미하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이다. 둘째,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이나 외국인 결혼가정의 자녀를 말한다. 셋째, 한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 자녀로서 외국에서 태어난 이후에 한국으로 이주한 국외출생국제결혼가정자녀가 있다. 넷째, 국외출생외국인가정자녀는 외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 자녀로 외국에서 출생한 이후에 한국으로 들어온 것을 말한다.

다문화청소년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질풍노도를 겪으면서 다문화가정 배경으로 인한 사회, 정서, 행동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미흡한 다문화수용성으로 인하여 이중문화를 경험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Berry, 2001). 이들이 겪는 발달단계의 과업, 사회적 역할에서의 변화 등의 어려움은 다문화청소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안선정, 이현철, & 임지영, 2013).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

과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양계민 외, 2020).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심리적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비(非)다문화청소년과는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가족 환경과 학교 환경에서의 가치관, 문화적 관행, 언어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며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학교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낮은 다문화수용성으로 인해 편견과 차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비(非)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송사리, & 박명숙, 2019). 또한, 다문화청소년은 출신의 배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안선정, 이현철, & 임지영, 2013).

### 3. 다문화정책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정책 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외국인정책은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을 의미한다(법무부, 2018). 외국인정책에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목표들이 수립되어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정책은 이민자녀의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이중 언어 체계 고도화 사업과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제공하였다. 또한 정책 사각지대에 위치한 중도입국·미등록 청소년 등에 대해 안정적으로 공교육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방치된 외국인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교원연수 활성화를 통해 아동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였다(법무부, 2021). 한편,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정착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다문화가족정책은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법제도적 차원의 정착을 지원하는 외국인정책과는 달리 사회정책제도의 성격을 보인다.

### 1) 다문화가족 대상 정책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정책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등 다문화 관련 정책들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이처럼 관련 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등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지자체 거주 외국인이나 농어민 국제결혼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를 수립해오고 있다(유창준, 김건태, & 임상호, 2012).

우리나라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정다정 & 유두호, 2021). [표 2-3]과 같이 제1~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정책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3] 제1~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변화과정

| 구분 | 제1차 기본 계획 (2010~2012) | 제2차 기본계획 (2013~2017) | 제3차 기본계획 (2018~2022) |
|---|---|---|---|
| 시대적 특징 | -국제결혼 증가<br>-다문화가족 지속 증가<br>-결혼이민자 초기적응<br>-자녀출생 및 초기발달 시기(대부분 미취학) | -다문화가족 지속 증가<br>-결혼이민자의 양육부담 감소 및 사회진출 활성화<br>-미취학에서 학령기로 성장한 자녀세대<br>-중도입국청소년 증가 | -국제결혼 감소추세<br>-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 비율 증가<br>-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강화<br>-학령기 자녀세대 비율 상승<br>-가족형태의 다양화 |
| 비전과 기본 목표 | ▶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br>-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br>-다문화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br>-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br>-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 | ▶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br>-차별없는 다문화사회 구현<br>-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br>-다문화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

| | | | |
|---|---|---|---|
| 정부 과제 |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br>- 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 전 검증 강화<br>-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br>- 다문화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br>-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br>-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br>-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br>- 결혼이민자 사회 경제적 진출 확대<br>-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br>- 정책추진체계 정비 | -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br>-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확대<br>-다문화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br>-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br>-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체계 강화 |

출처: 여성가족부(2018)

제1~3차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기의 환경적 특징을 살펴보면, 제1차 기본계획이 발표된 2010년은 국제결혼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확대된 다문화사회의 '태동기'로 정의되는 시기이다(여성가족부, 2012). 제2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특징은 국제결혼이 상당히 안정된 형태로 나타남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소위 다문화사회의 '성장기'라고 불리며, 다문화가정자녀가 미취학아동에서 학령기 청소년이 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이 수행되고 있는 지금은 국제결혼인구의 감소와 다문화가족 유형의 다양화가 특징인 다문화사회의 '정착기'로 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8). 그중, 다문화가족 자녀와 관련된 정부과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세부과제의 수가 19개이며, 5개 정책과제 영역 가운데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즉,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지원에 초점을 맞추던 지난 다문화가족정책은 현재 다양한 다문화가족 유형의 정책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 2)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

결혼이주여성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부적응, 우울과 비행 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격차해소에 두고 있다(하여진, 2021). 앞서 논의한 다문화가족 정책의 세부 정책 과제 중 다문화가족 자녀와 관련한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정책의 시기별 현황

| 시기별 정책과제 | 중점과제 |
|---|---|
| 제1차(2010~2012):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 |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 발달 지원 사업 확대 |
| |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
| |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 제2차(2013~2017):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
| | 한국어능력 향상 |
| |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
| |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
| |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제3차(2018~2022):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
| |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 |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
| |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

출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자료 재구성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2010~2012)의 정책목표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2013~2017)의 정책목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7여년의 정책 수행과정에서는 주로 한국어 교육, 생애주기별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한편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2018~2022)은 결혼이민자의 10년 이상

장기정착 비율 증가와 다양한 가족 유형 발생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 및 진로진학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 상담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외국어, 예체능 등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 되고 있다.

둘째,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 인재 양성사업을 구축하고,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운영을 확대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살릴 수 있 글로벌 브릿지 사업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다.

셋째,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으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진로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인턴의 활성화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조기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을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다양화한다. 이와 더불어 중도입국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을 위한 취업사관학교 운영 및 훈련과정을 확대하였다.

위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은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이들이 원만히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진로 및 심리적응 프로그램, 학습지원, 물적지원 등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은경, 정윤호, & 조대연, 2022).

### 3)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

다문화가족정책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다문화정책의 목표 및 중점과제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및 정책들이 확대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도 증가되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정책지원을 하는 지자체 차원의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정책지원 예산은 925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0% 이상 증가되었다(여성가족부, 2021).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다문화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오히려 다문화청소년을 사회적으로 차별화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면서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강화했다는 측면도 있다(양계민 외, 2011). 또한, 일각에서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이 이들이 발달상 결핍되고 도움이 필요한 부족한 집단이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양계민 외, 2017).

또한 한 사회에서 특정한 용어의 통용은 지칭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특정한 범주와 이미지로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이민경 & 이수정, 2011). 즉, 다문화청소년을 '다문화'로 범주화함으로써 이들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핍된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전제한 지원정책은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제 2 절 삶의 만족도

### 1. 삶의 만족도의 개념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보다 포괄적 개념인 삶의 질(quality of life)부터 살펴보았다. 주로 사회과학에서 삶의 질은 주관적 안녕, 행복감, 만족 등의 다차원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조명호, 김정오, & 권석만, 1994). 아래 [표 2-5]와 같이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행복을 만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Kumar & Dileep, 2006).

[표 2-5] 삶의 만족도의 개념 정의

| 연구자 | 개념 정의 |
|---|---|
| Neugarten et al.(1961) | 일상생활을 통해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가치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
| Campbell(1976) | 주관적 지표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이를 통해 얻는 만족 |
| Medley(1976) | 자신의 기대가 합리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얻는 주관적 감정 |
| Ryff(1989) |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등의 하위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유쾌한 상태를 넘어 자아실현적 태도 |
| Diener et al.(1999) |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 |
| Schalock(1996) | 개인이 생활 전반에 걸친 주관적 만족감에 대한 판단이나 자신에게 거는 기대에 대한 충족감의 정도 |
| Huebner(2004) | 현재까지 자신의 삶을 잘 이행해왔으며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 |

삶의 만족도는 Neugarten et al.(1961)의 소득 수준, 경제적 부, 생활여건 및 신체적 건강 등의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삶의 만족

도 척도(Life Satisfaction Index: LSI)를 시작으로 논의되었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 등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Campbell(1976)은 삶의 만족도를 현재의 삶의 조건과 개인이 가장 경험하고 싶은 기대 수준 간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Medley(1976)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자신의 기대 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얻게 되는 주관적인 감정을 삶의 만족도라고 이해한다. Ryff(1989)가 제시한 심리적 안녕은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기수용, 환경 지배력, 자율성을 하위 요인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간의 행복감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유쾌한 상태를 넘어 자아실현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한편, Diener et al(1999)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Schalock(1996)은 개인이 생활 전반에 걸친 주관적 만족감에 대한 판단이나 자신에게 거는 기대에 대한 충족감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Huebner(2004)는 현재까지 자신의 삶을 잘 이행해왔으며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위와 같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을 스스로 판단하였을 때 만족하는 수준을 인지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 1)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2021년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 중 22위로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또한 주관적 행복지수의 표준점수도 79.5점으로 2018년에 비하여 약 15점 낮아졌다. 주관적 행복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 학교생활 만족, 어울림, 소속감, 외로움 여섯 항목 중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대폭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며,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박영신 외, 2000; 신미, 전성희, & 유미숙, 2010).

삶의 만족도는 한 번 정해지면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내면적 요인과 주변 사회 환경적 요인을 통해 변화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성장과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삶의 만족도는 성인이 된 이후 또는 전 생애기간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aha, Huebner, Suldo, & Valois, 2010). 청소년의 높은 삶의 만족도는 학교적응 수준, 대인관계 능력, 학습능력 등 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ldo & Huebner, 2006). 따라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변화하면서 삶의 만족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재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 2)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내적 변인, 가정환경변인, 환경변인, 사회문화변인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Huebner(1994)의 다면적 학생생활만족도척도(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MSLLS)가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는 곽금주(1995)가 MSLLS의 40문항을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33개 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청소년용 삶의 만족도 검사(Korean Life Satisfaction Scale for Adolescence: KLSSA)를 고안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만족, 학교만족, 가족만족, 친구만족, 주변 환경만족으로 총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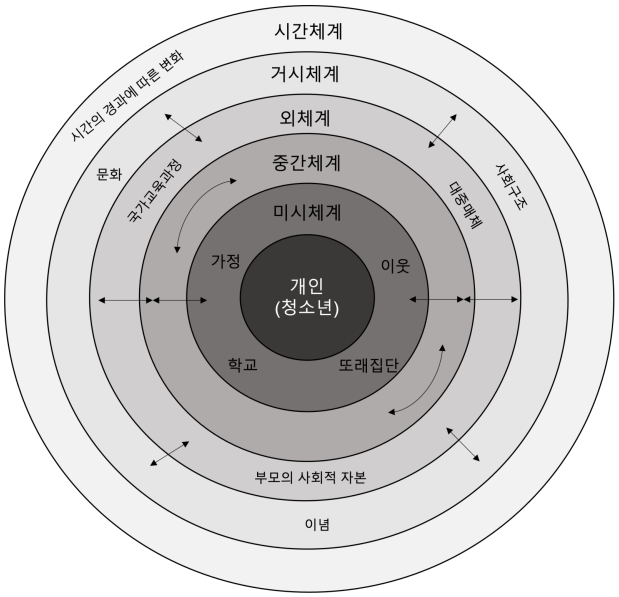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상태로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정, 환경 등 요인을 고려해야한다(조성연, 김혜원, & 김민, 2011). 특히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관계에서 겪는 변화가 많아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서영우, 2016).

### 3. 생태체계적 관점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은 인간은 자신이 둘러싼 환경 그리고 환경 속의 다양한 요소와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한다는 관점에서 파생된 이론이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인간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체계이론(system theory)과 생태학적 관점(ecological perspective)을 결합한 것이다. 체계이론은 체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와 같은 구조에 초점을 두는 반면, 생태학적 관점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상호작용과 교류에 초점을 둔다(Meyer, 1983).

Bronfenbrenner(1979)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인간의 생물심리학적 특성이 이어지고 변화하는 현상을 인간발달이라고 정의하며, [그림 2-1]과 같이 생태적 환경을 다섯 가지 수준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시간체계(chronosystem)로 구분하였다.

[그림 2-1] 생태체계이론의 수준



미시체계(microsystem)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개인의 활동 및 역할과 같은 대인관계 유형이다. 환경 맥락 안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층으로 부모, 형제, 또래와의 관계에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말한다(Bronfenbrenner, 1989).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등이 미시체계에 속한다.

중간체계(mesosystem)는 개인이 접촉하는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으로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Paquette & Ryan, 2001). 즉,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의 체계로 근접 맥락 사이의 관계가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김태한 & 전영욱, 2021). 즉,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소통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가 중간체계에 해당된다.

외체계(exosystem)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넓은 범위의 환경을 말한다(Paquette & Ryan, 2001).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가정은 근접 맥락이지만 부모의 직장은 근접 맥락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모의 직장경험은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태한 & 전영욱, 2021). 즉, 부모의 사회적 관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외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거시체계(macrosystem)는 환경 맥락 안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으로 한 사회에 형성된 문화로서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가치관, 생활양식, 법, 국가의 특정 문화 및 이념에서 강조되는 철학 등을 포괄한다(Bronfenbrenner, 1989). 이러한 거시체계는 개인의 일상적 상호작용과 근접 맥락의 가용 자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김태한 & 전영욱, 2021).

시간체계(chronosystem)는 한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변화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연구모델을 지정하기 위해 제안된 용어이다(Bronfenbrenner, 1989). 개인의 환경과 관련된 시간의 차원을 포함한 것으로, 부모의 사망과 같은 외부적 요소 혹은 개인의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와 같은 내부적 요소가

있다(Paquette & Ryan, 2001). 즉, 개인의 발달에 따라 거주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개인의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말한다.

이처럼 생태체계이론은 개인을 직접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환경부터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까지 인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환경이 겹겹이 포개진 모양으로 구성되어 인간의 발달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양계민 외, 2011).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는지, 타국에서 출생한 후 한국으로 이민을 온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수준의 체계들은 여러 생태학적 체계의 영향을 받으며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생태체계이론을 통하여 각 변수를 설정하였다.

### 4. 생태학적 관점을 통한 변수 설정

생태체계적 관점은 개인체계와 사회환경체계로 구분된다(남기민 & 정은경, 2011). 개인체계는 미시체계와 같은 개념으로 나이,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주관적 건강 등 요인을 포함한 개인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사회환경체계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 요소로 가족, 이웃, 친구,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다. 즉,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이웃, 또래집단 등 개인과 타자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관계인 중간체계와 지역사회나 문화를 포함하는 거시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책수혜, 사회복지서비스 등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박소연 & 박소영, 2018).

본 연구는 생태체계 관점에서 강조하는 개념인 '환경 속의 인간'에 기반하여 개인체계와 사회환경체계의 특성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맥락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변수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사회환경체계 중 사회적 지지의 하위문항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설정하였으며, 조절변

수로는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를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개인체계와 사회환경체계의 수준에서 구성하였다. 개인체계에서의 통제변수로는 개인 요인으로 성별, 나이, 거주지역 규모, 신체만족도(외모), 월 평균 가구소득, 어머니 학력, 부모님 결혼 상태, 친한 친구의 수를 포함하였다. 사회환경체계에서의 통제변수는 다문화 요인으로 국가정체성, 다문화수용성, 현재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의 유무의 변수를 포함하였다.

## 제 3 절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자신이 보호 및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도록 해주는 정보, 자신이 존중받고, 가치 있다고 믿도록 해주는 정보, 자신이 의사소통을 하는 상대와 관계망 속에서 함께 하고 있다고 믿도록 해주는 정보로 구분지어 정의하였다. Cohen &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로 나누어진다고 정의하며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사회적 지지라고 하였다. Furman & Buhrmester(1987)는 부모, 친구, 교사 등이 아동에게 의미 있는 타자이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의 사회적 환경 또는 생태체계적 환경 내에서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말한다.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감정적 지지, 정보에 의한 지지, 동료의식의 지지, 실질적 지지의 제공으로 이루어진다(Wan, Jaccard, & Ramey, 1996). 감정적 지지는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적인 표현과 소통을 통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보적 지지를 통해서는 주어진 문제를 인식,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얻음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킨다(House, 1981).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긍정적인 공동체의식이 발생되어 동료의식의 지지가 형성되면 이는 다시 삶에 만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재정적 지원이나 물질적 자원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Wan, Jaccard, & Ramey, 1996).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요인을 완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교사 등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원조와 긍정적 자원이 되며, 심리적 적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최진아 & 이숙, 1996). 즉, 청소년기에는 가까운 대인관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 외부적 환경인 사회적 지지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청소년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과 학교 등 제한된 공간에 보내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적절한 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성인보다는 제한된 지지 제공자를 갖게 된다(이미애 & 정회욱,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다문화청소년의 가장 가까운 환경적 요인인 가족과 학교에서 마주하는 친구와 교사의 다양한 도움과 지원을 사회적 지지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1.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중 가족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미시체계이자 일차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청소년 스스로 인식한 부모의 지지가 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 부모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석말숙 & 구용근, 2015). 특히, 우리나라 사회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다문화청소년에게는 가족의 든든한 지지는 삶에 대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는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와의 갈등 수준이 높게 나타날수록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짐을 보였으며 반대로 부모가 본인에게 애정적이고 지지받는다고 느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안선정, 이현철, & 임지영, 2013). 다문화청소년이 지각된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에서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에 시간이 흐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효연, 2017). 이처럼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에 대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껴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 2. 친구지지

청소년기 사회적 지지의 원천은 가족과 친구, 교사 등이다(설진배 & 김소희, 2017). 특히 친구지지는 가족이나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와는 다르며 심리적 적응을 돕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uhs & Ladd, 2001).

청소년기의 또래집단 무작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 배경, 관심을 공유하는 자들로 구성되므로,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과 같은 동질성은 또래집단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다(Clooins, 1988; Luo, Fang & Aro, 1995). 다문화청소년은 이중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피부색이나 생김새 등이 비(非)다문화청소년과 다르기 때문에 또래집단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 따돌림, 차별, 삶의 불만족 등의 원인으로 작용 수 있다(노보람 & 최나야, 2020). 또한,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지내는 시간보다 또래집단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친구와의 관계가 그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교사지지

다문화청소년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처음 접하는 사회로서의 학교와 학교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이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은경, 정윤호 & 조대연, 2022). 특히,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습효과, 정서, 태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종백 & 김남희, 2014). 북미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아프리카계 및 멕시코계 미국인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 '편견을 가진 심판관'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연구(Bennet, 2007)를 접할 수 있다.

교사들은 잠재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을 통해 학습자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다문화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사의 특정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과 세계관은 교사의 행동, 태도, 인지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사가 다문화학생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도 영향을 준다(Bennett, 2007: 하혜숙, 2011). 만약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 경우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다문화청소년과의 소통적 상호작용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게 되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촉진할 수 있다(하혜숙, 2011; 황매향 외, 2014).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정서적·물리적 지원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해석되며, 다문화청소년이 교사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에 도움을 받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요인으로 작용한다(황여정 & 김경근, 2006). 즉, 교사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 제 4 절 욕구위계이론

인간의 욕구는 만족의 원인이 되며 최종적으로 만족을 추구한(Koontz, 1980).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이론 중에서 Maslow의 욕구위계이론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욕구는 동기 및 행동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Maslow, 2009).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나누었으며, 기본적이고 낮은 차원의 욕구가 만족된 후에 더 높은 차원의 욕구가 발생한다고 하였다(정미렴, 2012). Maslow가 제시한 욕구위계이론에서는 모든 인간은 보편적이고 다중의 독립성을 가지는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되고, 이러한 욕구들은 우선순위가 있는 계층을 형성한다고 하였다(Maslow, 2009). 즉, 낮은 수준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높은 수준의 욕구가 발생한다.

[그림 2-2] Maslow의 욕구 5단계

출처: Maslow(1943)

Maslow의 욕구위계이론의 가장 원초적인 단계는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이다. 생리적 욕구란 음식, 물, 호흡, 배설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욕구를 의미한다.

욕구의 2단계는 안전의 욕구(safety needs)이다. 안전의 욕구는 인간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불확실함과 무질서 등의 상황에서 오는 불안, 공포 등의 감정으로부터 해방되고, 잘 조직화되고 확실한 상황에 적응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이경희, 2011). 즉, 신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 감정적인 안전도 포함한다. 특히, 가정과 직업 및 재정적 안전, 질병과 자연재해 그리고 사회적 혼란으로부터의 안전보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Maslow, 1970). 이러한 욕구위계이론은 재해, 폭력, 학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어린이들 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절한 중재전략을 강구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Harper, Harper, & Stills, 2003; Henwood, Derejko, Couture, & Padgett, 2015).

욕구의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love/belonging needs)이다(Maslow, 1970).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충족되면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통하여 소속감과 친밀감 및 사랑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Maslow, 1970). 즉,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나아가 이들과 집단을 형성하면서 관계 속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설명한다(이경희, 2011).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가 좌절되면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수반하는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 쉽다(Arditte, Morabito, Shaw, & Timpano, 2016). 반대로 이러한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된다면 단순히 소속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타인으로부터 수용되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존중 욕구를 추구한다고 하였다(Maslow, 1943). 다문화청소년은 의사소통의 문제나 피부색 등의 문제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또래집단에서 고립되기 쉽다(김현식 & 김두섭, 2014).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보면, 다문화청소년은 또래집단에 속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는 욕구를 보일 것이다.

욕구의 4단계는 자기존중의 욕구(esteem needs)이다. 자기존중의 욕구는 자신 스스로의 존중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높은 평가와 존경을 원하는 욕구이다(이경희, 2011). 예를 들면, 개인이 느끼는 자신감,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명예, 인기, 보상 등이 이러한 욕구에 포함되며 사회적인 관계를 넘어 사회적인 보상과 관계가 깊다(김정래, 2014). 이를 충족시킨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 무력감, 나약함을 느끼게 된다(정미렴, 2012).

마지막 욕구의 5단계는 자기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이다. 앞서 설명한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도 자신에게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면 종종 불만족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정미렴, 2012). 자기실현의 욕구는 자신이 자신에게 맞는 영역을 선택하고, 본성을 실현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김정래, 2014). 즉, 자신의 숨은 잠재력을 발현하여 자신을 완성하기 위한 욕구와 있는 그대로의 본성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고 싶은 욕구라 할 수 있다(Maslow, 2009).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욕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발달의 마지막 단계이자 최고의 단계이다(정미렴, 2012).

Maslow의 욕구위계이론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각 욕구에 위계성을 부여하였으며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현한다. 이는 욕구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와 관련된 환경이 소속감과 애정 욕구나 자아존중과 관련된 환경보다 먼저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정미렴, 2012).

## 제 5 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9회 조사를 진행한 다문화청소년패널 중 제7차(2017년), 제8차(2018년), 제9차(2019년), 총 3개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가 조절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족정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 1.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Baumeister & Leary(1995)는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지속시킬 보편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이러한 관계의 존재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삶의 만족도와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만족 간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Diener, Oishi, & Lucas, 2003).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와 노인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정엽, 2010; 임정기, 2013), 사회적 지지와 장애인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박자경, 2009; 김자영, 2020), 사회적 지지와 장애아동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서은 & 어주경, 2015)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영희, 심영미, & 강갑원, 2015; 전리상 & 조홍중, 2017), 사회적 지지와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유여진 & 황정하, 2022), 사회적 지지와 이주자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성현란, 2011; 오금숙 & 김윤정, 2013; 이지현 외, 2013), 사회적 지지와 전환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

펴본 연구(이효경 & 손은령, 2019) 등이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확인해 주는 지표가 된다. 특히, 부모와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관계로 나타났다(박영신 & 김의철, 2004; 조성연, 김혜원, & 김민, 2011; Furnham & Cheng, 2000; Holder & Coleman, 2009). 부모와의 관계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보고되었으며(Holder & Coleman, 2009; Suldo & Huebner, 2006), 부모의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청소년의 개인 내적 및 외적 발달 전반에 영향을 주는 변인(손보영 외, 2012)으로 알려져 있다. 즉, 부모의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통한 지지는 높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Cheng & Furnham, 2000). 또한 청소년기에는 또래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또래의 영향력은 증가한다. 많은 선행연구들도 친구와의 관계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조성연, 김혜원, & 김민, 2011; 박병선 & 배성우, 2012). 또래 간의 높은 지지와 도움은 청소년의 적응 및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이재경 & 조혜정, 2012),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청소년이 더 높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였다(조은정, 2014).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은 준다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다문화청소년의 수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은 그 누구보다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Brofenbrener(1979)의 생태체계이론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해 설명하면 대부분 청소년에게 미시적 체계는 가족으로 제한이 된다. 청소년의 성장에 따라 활동 범위도 확장하여 학교와 또래 친구의 관계도 미시적 체계에 들어온다. 그러므로 관계적 측면으로 볼 때 부모, 친구, 교사가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Brofenbrener, 199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지고, 부모, 또래, 교사 등 중요한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신승배, 2018). 김민주 & 윤기봉(2018)은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청

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 그리고 교사의 역할과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볼 때 가족지지, 친구지지, 그리고 교사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가족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친구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교사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다문화가족정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드물다.

가정 내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지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청소년은 학교생활과 학업 능력에 부적응을 초래한다(정진우, 2014). 비슷한 맥락으로, 부족한 언어능력은 학업 능력을 저하시키며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야기하고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것을 결국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것이다(김미예 & 임지영, 2012).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현금지원과 학습지원 등은 가정 내 교육지원 부족과 언어 능력에 대한 보완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은 비(非)다문화청소년과 다르게 외모나 가정환경에 관한 놀림 등으로 소극적 대인관계를 맺으며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오성배, 2007), 다문화가정이라는 배경에서 부정적 정서나 강압적이거나 회피적인 상호작용은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박경자 & 김송이,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행동발달을 감소시켰으며(이기봉, 박일혁, & 진성룡, 2014),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김홍석 & 이현정, 2008)를 확인할 수 있다. Banks(2009)는 모든 학생이 성별이나 사회적 계층, 민족적·인종적·문화적 특성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학습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들의 다문화정책프로그램 수혜 여부는 그들에게 긴밀하게 작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이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 3.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은『교육기본법』제4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 내용은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문화공연 관람 지원에서부터 특기 적성이나 심리적응 프로그램 제공, 대학생 멘토링, 한국어 교육 지원과 진로 지원 등으로 다양하다(여성가족부, 2019).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내용은 현금지원, 학습지원, 진로관련 프로그램, 물적지원, 심리적응 프로그램, 문화공연관람, 기타 총 7가지 내용으로 분류된다.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 역시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조성희 & 박소영(2021)은 다문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가 조절효과를 가지며, 수혜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는 사회적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가설 2-1〉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는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가설 2-2〉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는 친구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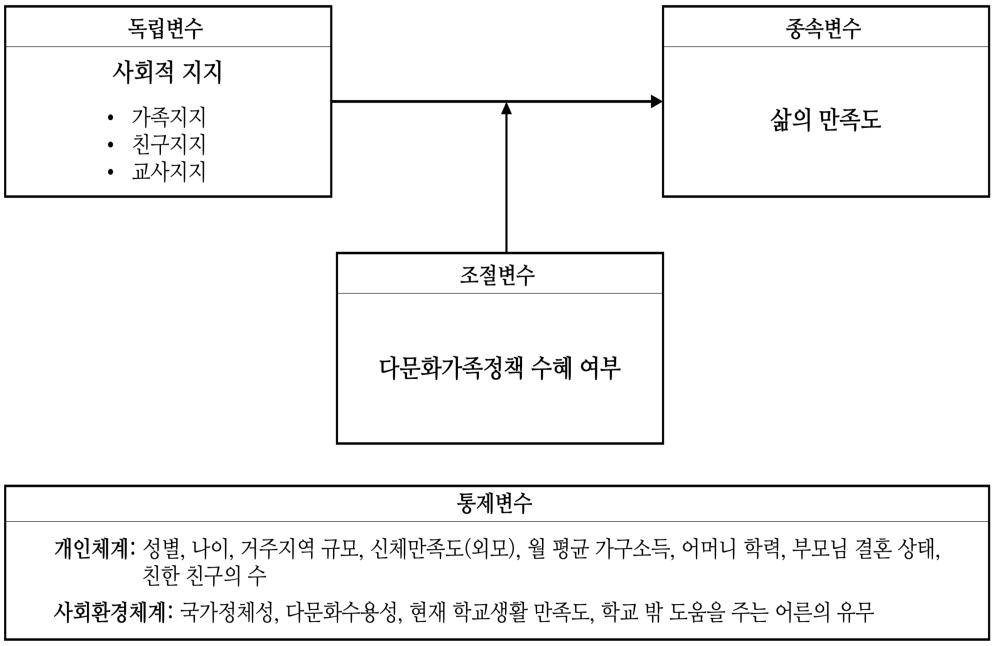
〈가설 2-3〉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는 교사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 제 3 장 연구 설계

## 제 1 절 연구 모형 설정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그 관계에서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를 사회적 지지로, 종속변수를 삶의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그 관계를 조절하는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를 조절변수로 살펴본다. 연구의 분석모형은 [그림 3-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 제 2 절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 MAPS)의 제7차년도(2017년), 제8차년도(2018년), 제9차년도(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체류자격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을 지닌 만 9세에서 만 24세 연령에 속하는 초·중등교육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 이들 대상을 '다문화청소년'으로 칭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다문화청소년패널은 외국인 자녀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바, 연구 대상과 분석대상에는 분석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패널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여 표본추출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패널을 활용한 것은 모집단 분포가 국제결혼가정자녀가 대다수였고, 그에 따른 패널 조사결과에서 외국인 자녀가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1]의 심의를 거쳤으며, 전문 조사원에 의해 연구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은 패널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 총 1,260명, 1,197명, 1,146명으로 총 3,603명이었으며, 해당 표본추출은 16개 시·도의 표본 학교 기준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하였고, 층 내에서는 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였다.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번호: 201904-HR-고유-002-01

##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석 자료로 패널데이터를 선정하였다. 패널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와 횡단면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다. 시계열 데이터는 어떤 특정 개체의 현상이나 특성을 시간순서대로 측정해 놓은 것이고, 횡단면 데이터는 특정 시점에 여러 개체의 현상이나 특성을 모아 놓은 것이다. 즉, 패널데이터는 여러 개체에 대해 그 현상이나 특성을 일련의 관측 시점별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민인식, 2012).

패널데이터의 장점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특정 시점에 대한 여러 개체의 조사인 횡단면 데이터와는 다르게 패널데이터는 개인이 반복하여 관찰되기 때문에 동적인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둘째,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패널데이터는 횡단면 또는 시계열 데이터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variability)을 제공한다. 즉,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으며 선형회귀모형에서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민인식, 2012).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국내 패널조사로 2011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다문화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본 조사에서 의미하는 다문화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문화청소년패널의 제7차년도, 제8차년도, 제9차년도 자료는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2018년 7부터 10월까지,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각 실시된 조사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2011년 다문화청소년 1,635명을 시작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여 2019년 1,1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9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1기 패널이 종료되었다. 추적조사 과정에서 조사거부, 유학, 이민 등으로 인해 1차 조사에 참여한 표본 중 총 456가구의 이탈이 발생하였고, 최종적으로 1,169가구(다문화청소년 1,178명과 그들

의 어머니 및 대체양육자 1,145명)가 제9차년도에 응답하였으며 패널 구축 이후 71.9%의 유지율을 보인다.

다문화청소년패널은 다문화청소년의 배경변인, 다문화관련요인 및 개인 요인,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자료로 다문화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정서·행동관계, 이중문화 관계, 가족 관계 및 사회적 관계 등 광범위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사회적 위축, 다문화수용성, 학교생활, 지역사회 지지망 등 본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종단연구 분석을 위한 충분한 시점 확보의 강점이 있어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3. 연구 대상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다문화청소년패널의 제7~9차년도 데이터의 다문화청소년이다. 각 연도별 데이터의 연령에 따른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제7차년도 연령의 범위는 15세 이상 19세 이하로 평균 16세(표준편차 0.35), 제8차년도 연령의 범위는 16세 이상 20세 이하로 평균 17세(표준편차 0.35), 제9차년도 연령의 범위는 17세 이상 21세 이하로 평균 18세(표준편차 0.35)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다문화청소년은 평균 16세에서 18세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패널데이터는 동일인이 반복하여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술통계분석에서는 2019년 9차 조사 대상 중 근속자인 1,138명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3-1]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자 559명(49.1%), 여자 579명(50.9%)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일본 398명(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 299명(26.2%), 중국(조선족) 198명(17.4%), 중국(한족, 기타민족) 79명(7%), 기타 58명(5.1%), 태국 47명(4.1%), 그리고 한국 36명(3.2%) 순이었다. 부모의 외국인 여부는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1,097명

(96.4%)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34명(3%)를 차지하였다. 그 외로 두 분 모두 외국인 5명(.4%), 두 분 모두 한국인 2명(.2%)이다. 거주지역은 경인(경기+인천) 288명(2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상권 265명(23.3%), 전라 및 제주권 248명(21.8%), 충청 및 강원권 227명(20%), 그리고 서울 110명(9.7%)으로 가장 적었다. 거주지역 규모는 중소도시 511명(44.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읍/면 345명(30.3%), 대도시 282명(24.8%) 순이었다.

[표 3-1] 설문응답자의 특성 (N=1,138)

| 구분 | 내용 | 빈도(명) | 비율(%) |
|---|---|---|---|
| 성별 | 남자 | 559 | 49.1 |
| | 여자 | 579 | 50.9 |
| | 전체 | 1,138 | 100 |
| 어머니 출신국가 | 한국 | 36 | 3.2 |
| | 중국(한족, 기타민족) | 79 | 7 |
| | 중국(조선족) | 198 | 17.4 |
| | 베트남 | 23 | 2 |
| | 필리핀 | 299 | 26.2 |
| | 일본 | 398 | 35 |
| | 태국 | 47 | 4.1 |
| | 기타 | 58 | 5.1 |
| | 전체 | 1,138 | 100 |
| 부모의 외국인 여부 | 아버지 | 34 | 3.0 |
| | 어머니 | 1,097 | 96.4 |
| | 두 분 모두 외국인 | 5 | 0.4 |
| | 두 분 모두 한국인 | 2 | 0.2 |
| | 전체 | 1,138 | 100 |
| 거주지역 | 서울 | 110 | 9.7 |
| | 경인(경기+인천) | 288 | 25.2 |
| | 충청 및 강원권 | 227 | 20 |
| | 경상권 | 265 | 23.3 |
| | 전라 및 제주권 | 248 | 21.8 |
| | 전체 | 1,138 | 100 |
| 거주지역 규모 | 읍/면 | 345 | 30.3 |
| | 중소도시 | 511 | 44.9 |
| | 대도시 | 282 | 24.8 |
| | 전체 | 1,138 | 100 |

## 제 3 절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의 구성 및 측정문항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문항

| 변수 | | | 측정문항<br>*역척도 문항 | 척도 및 형태 |
|---|---|---|---|---|
| 종속 | | 삶의 만족도 | 나는 사는게 즐겁다. | 4점 척도 |
| | | |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 |
| | | |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 |
| 독립 | | 가족지지 |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 4점 척도 |
| | | | 우리 가족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 |
| | | | 우리 가족은 내가 힘들어할 때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 |
| | | |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 |
| | | |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 |
| | | |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 |
| | | 친구지지 | 우리학교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 5점 척도 |
| | | | 우리학교 친구들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준다. | |
| | | | 우리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준다. | |
| | | 교사지지 | 학교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서 의논할 선생님이 있다. | 5점 척도 |
| | | |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나에게 친절하시다. | |
| | | |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 |
| 조절 | | 다문화가족 정책 수혜 여부 | 1) 하나 이상의 지원 이용 경험을 가진 경우(=1) 2) 그렇지 않은 경우(=0) | 더미변수 |
| 통제 | 개인요인 | 성별 | 1) 남자(=0) 여자(=1) | 더미변수 |
| | | 나이 | N세 | 연속변수 |
| | | 거주지역 규모 | 1) 읍/면 2) 중소도시 3) 대도시 | 3점 척도 |
| | | ln가구소득 | 월 평균 소득의 자연로그 값 | 연속변수 |

| | | | | |
|---|---|---|---|---|
| | | 어머니 학력 |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 4점 척도 재구성 |
| | | 부모님 결혼상태 | 1) 결혼 2) 이혼 3) 별거 4) 사별 5) 동거 | 5점 척도 |
| | | 친한 친구의 수 | N명 | 연속변수 |
| | | 신체만족도 | 나는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4점 척도 |
| | | |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 | |
| | | | 나는 신체모습 중 몇 군데를 바꾸고 싶다.* | |
| | | | 나는 좋은 느낌을 주는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
| | | | 나는 나의 외모 때문에 괴롭다.* | |
| | 다문화요인 | 국가정체성 |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 4점 척도 |
| | | |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관심이 많다. | |
| | | |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 |
| | | | 누군가 한국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 하면 나에게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다. | |
| | | 다문화수용성 |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4점 척도 |
| | | |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 |
| | | |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 |
| | | | 이성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친구로 사귈 수 있다. | |
| | | |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 |
| | | 학교생활 만족도 | 1) 매우 불만족한다 2) 불만족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하는 정도이다 5)매우 만족한다 | 5점 척도 |
| | |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 유무 | 1) 아니오(=0) 2) 예(=1) | 더미변수 |

### 1.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삶의 만족도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Dunbar et al.(1992)가 개발한 SmithKline Beecham Quality of Life Scale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행복함 정도와 관련한 항목 3문항을 뽑아 리커트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나는 사는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9이다.

### 2. 독립변수: 사회적 지지 -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사회적 지지는 Dubow & U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 SSAS)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평가도구는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총 12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리커트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를 활용한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가족지지는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친구지지는 '우리학교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우리학교 친구들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준다', 교사지지는 '학교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서 의논할 선생님이 있다',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나에게 친절하시다' 등의 문항이 있다. 문항 간 신뢰도를 살펴보면, Cronbach's $\alpha$는 가족지지 .94, 친구지지 .92, 교사지지는 .88이었다.

### 3. 조절변수: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책 수혜 여부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다문화가족 정책지원 이용 경험은 청소년이 학교를 포함한 사회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으로써 지원받은 정책적 지원의 이용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의 여부를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3개년도 패널데이터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정책지원을 현금지원, 학습지원, 진로관련 프로그램, 물적 지원, 심리적응 프로그램, 문화공연관람, 기타 지원까지 총 7가지 유형의 정책지원의 이용 경험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책지원의 이용 경험이 갖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므로 지난 1년간 다양한 다문화가족 정책지원 중 다문화청소년이 '하나 이상의 지원 이용 경험을 가진 경우(1)'와 '그렇지 않은 경우(0)'로 구분하여 측정된 응답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4. 통제변수

기존 연구를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체계(개인요인)와 사회환경체계(다문화요인)의 수준에서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먼저, 개인 요인에는 성별, 나이, 거주지역 규모, 신체만족도(외모), 월평균 가구소득, 어머니 학력, 부모님 결혼 상태, 친한 친구의 수가 포함되며, 다문화 요인은 국가정체성, 다문화 수용성, 현재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의 유무 변수가 포함된다.

성별은 남(0)/여(1)의 더미변수로 측정되었으며, '남성'을 더미변수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연령은 자연 연령으로 측정하였다. 거주지역 규모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커질수록 대도시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측정하였다. 신체만족도(외모)는 4점 척도로 5문항의

평균점수로 측정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 대학(2~3년제) 졸업과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을 하나로 합쳐 '대학교 졸업'으로 재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님 결혼 상태로는 결혼(1), 이혼(2), 별거(3), 사별(4), 동거(5)로 측정하였다. 친한 친구의 수는 연속변수로서 자연수로 측정하였다. 신체만족도는 스스로가 인식하는 자신의 외모와 신체 모습에 대한 만족도 네 가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 변수화 하였다. 국가정체성은 스스로 인식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기분을 묻는 네 가지 설문 문항의 평균 변수로 측정하였다. 다문화수용성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 묻는 다섯 가지 설문 문항의 응답을 평균 변수로 측정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불만족한다(1), 불만족하는 편이다(2), 보통이다(3), 만족하는 정도이다(4), 매우 만족한다(5)로 측정되었다.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 유무는 아니오(0)/예(1)의 더미변수로 측정되었다.

## 제 4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 하위문항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표 3-3]과 같은 분석방법들을 거친다.

먼저,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변수의 타당성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조사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문항 간 내적 일관성 지수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회귀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구모형 추정 왜곡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패널회귀분석을 위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떤 것이 본 연구에 적합한 모델인지 판단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하우스만 검정의 기본 아이디어는 확률효과모형의 결과값과 고정효과모형의 결과값을 비교하여, 귀무가설을 두 결과값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설정하고 이의 기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하우스만 검정의 결과값에 따라 고정효과모형을 채택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와 조절변수의 효과를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 분석은 STATA 17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3-3] 연구의 분석방법

| 분석내용 | 분석방법 |
|---|---|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기술통계분석 |
| 변수의 타당성 | 요인분석 |
| 변수의 신뢰도 | 신뢰도 분석 |
|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 상관관계분석 |
|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 다중회귀분석 |
| 고정효과 혹은 확률효과 모형의 선택 | 하우스만 검정 |
| 다문화가족 정책지원 이용 경험의 조절효과 | 패널고정효과 |

# 제 4 장 연구 결과

## 제 1 절 기초통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다문화청소년 패널데이터의 개체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여, 주요 변수들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값, 빈도 및 비율을 제시하였다. T차 조사(2017년), T+1차 조사(2018년), T+2차 조사(2019년)의 총 3개의 조사를 차수별로 분석하였으며, 각 조사를 모두 합하여 만든 불균형 패널과 각 차수별로 모든 관측치가 존재하는 균형 패널에 대해서도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1. T차 조사(2017년)

2017년 T차 조사의 경우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평균이 2.88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친구지지가 4.01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나이의 평균은 16세(표준편차 = .35),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수는 평균 7.47명(표준편차 = 5.94)이며, 거주지역 규모는 중소도시(44.5%)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47.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41.2%)이 차지하였다. 부모님의 결혼 상태로는 결혼(91%)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별(3.9%)이 차지하였다.

[표 4-1] 2017년 T차 조사의 기술통계 (N=1,260)

|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삶의 만족도 | 2.88 | .54 | 1 | 4 |
| 가족지지 | 3.16 | .54 | 1 | 4 |
| 친구지지 | 4.01 | .71 | 1 | 5 |

| | | | | | |
|---|---|---|---|---|---|
| 교사지지 | | 3.84 | .74 | 1 | 5 |
| 다문화가정 정책 수혜 여부 | | .185 | .39 | 0 | 1 |
| 나이 | | 16 | .35 | 15 | 19 |
| ln월평균 가구소득 | | 5.5 | .45 | 3.9 | 7.1 |
| 국가정체성 | | 2.86 | .62 | 1 | 4 |
| 다문화수용성 | | 3.17 | .54 | 1 | 4 |
| 신체만족도 | | 2.61 | .42 | 1 | 4 |
| 친한 친구의 수 | | 7.47 | 5.94 | 0 | 51 |
| 학교생활 만족도 | | 3.72 | .84 | 1 | 5 |
|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사람 | | .27 | .44 | 0 | 1 |
| | | **빈도(명)** | **비율(%)** | **최소값** | **최대값** |
| 성별 | 남 | 615 | 48.8 | 0 | 1 |
| | 여 | 645 | 51.2 | | |
| 거주지역 규모 | 읍/면 | 381 | 30.2 | 1 | 3 |
| | 중소도시 | 560 | 44.5 | | |
| | 대도시 | 319 | 25.3 | | |
| 어머니 학력 | 중졸 이하 | 136 | 10.8 | 1 | 4 |
| | 고졸 | 597 | 47.5 | | |
| | 대학교 졸업 | 518 | 41.2 | | |
| |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 7 | 0.5 | | |
| 부모님 결혼 상태 | 결혼 | 1,121 | 91 | 1 | 5 |
| | 이혼 | 47 | 3.8 | | |
| | 별거 | 14 | 1.1 | | |
| | 사별 | 48 | 3.9 | | |
| | 동거 | 6 | 0.4 | | |

## 2. T+1차 조사(2018년)

2018년 T+1차 조사의 경우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평균이 2.83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친구지지가 4.1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나이의 평균은 17세(표준편차 = .35),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수는 평균 7.6명(표준편차 = 6.52)이며, 거주지역 규모는 중소도시(45%)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47.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41.2%)이 차지하였다. 부모님의 결혼 상태로는 결혼(90.1%)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별(4.3%)이였다.

[표 4-2] 2018년 T+1차 조사의 기술통계 (N=1,197)

| |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삶의 만족도 | | 2.83 | .58 | 1 | 4 |
| 가족지지 | | 3.17 | .57 | 1 | 4 |
| 친구지지 | | 4.1 | .71 | 1 | 5 |
| 교사지지 | | 3.88 | .78 | 1 | 5 |
| 다문화가정 정책 수혜 여부 | | .16 | .37 | 0 | 1 |
| 나이 | | 17 | .35 | 16 | 20 |
| ln월평균 가구소득 | | 5.52 | .47 | 3.9 | 7.1 |
| 국가정체성 | | 2.9 | .65 | 1 | 4 |
| 다문화수용성 | | 3.22 | .55 | 1 | 4 |
| 신체만족도(외모) | | 2.61 | .44 | 1 | 4 |
| 친한 친구의 수 | | 7.6 | 6.52 | 0 | 100 |
| 학교생활 만족도 | | 3.72 | .83 | 1 | 5 |
|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사람 | | .30 | .46 | 0 | 1 |
| | | 빈도(명) | 비율(%) | 최소값 | 최대값 |
| 성별 | 남 | 587 | 49 | 0 | 1 |
| | 여 | 610 | 51 | | |
| 거주지역 규모 | 읍/면 | 355 | 30 | 1 | 3 |
| | 중소도시 | 540 | 45 | | |
| | 대도시 | 302 | 25 | | |
| 어머니 학력 | 중졸 이하 | 133 | 11.1 | 1 | 4 |
| | 고졸 | 564 | 47.3 | | |
| | 대학교 졸업 | 493 | 41.2 | | |
| |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 5 | 0.4 | | |
| 부모님 결혼 상태 | 결혼 | 1,059 | 90.1 | 1 | 5 |
| | 이혼 | 47 | 4.1 | | |
| | 별거 | 14 | 1.2 | | |
| | 사별 | 51 | 4.3 | | |
| | 동거 | 4 | 0.3 | | |

## 3. T+2차 조사(2019년)

2019년 T+2차 조사의 경우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평균이 2.84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친구지지가 4.1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 주었다.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나이의 평균은 18세(표준편차 = .35), 다문

화수용성과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수는 평균 6.4명(표준편차 = 4.5)이며, 거주지역 규모는 중소도시(44.9%)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47.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41.4%)이 차지하였다. 부모님의 결혼 상태로는 결혼(88.5%)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이혼(5.1%)과 사별(5.1%)이 차지하였다.

[표 4-3] 2019년 T+2차 조사의 기술통계 (N=1,146)

| |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삶의 만족도 | | 2.84 | .58 | 1 | 4 |
| 가족지지 | | 3.18 | .57 | 1 | 4 |
| 친구지지 | | 4.1 | .72 | 1 | 5 |
| 교사지지 | | 3.91 | .79 | 0 | 1 |
| 다문화가정 정책 수혜 여부 | | .15 | .36 | 0 | 1 |
| 나이 | | 18 | .35 | 17 | 21 |
| ln월평균 가구소득 | | 5.6 | .46 | 3.9 | 9.2 |
| 국가정체성 | | 2.86 | .62 | 1 | 4 |
| 다문화수용성 | | 3.76 | .55 | 1 | 4 |
| 신체만족도 | | 2.62 | .44 | 1 | 4 |
| 친한 친구의 수 | | 6.4 | 4.5 | 0 | 50 |
| 학교생활 만족도 | | 3.76 | .83 | 1 | 5 |
|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사람 | | .33 | .47 | 0 | 1 |
| | | 빈도(명) | 비율(%) | 최소값 | 최대값 |
| 성별 | 남 | 562 | 49 | 0 | 1 |
| | 여 | 584 | 51 | | |
| 거주지역 규모 | 읍/면 | 347 | 30.3 | 1 | 3 |
| | 중소도시 | 515 | 44.9 | | |
| | 대도시 | 284 | 24.8 | | |
| 어머니 학력 | 중졸 이하 | 125 | 10.9 | 1 | 4 |
| | 고졸 | 540 | 47.3 | | |
| | 대학교 졸업 | 474 | 41.4 | | |
| |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 5 | 0.4 | | |
| 부모님 결혼 상태 | 결혼 | 994 | 88.5 | 1 | 5 |
| | 이혼 | 57 | 5.1 | | |
| | 별거 | 12 | 1.1 | | |
| | 사별 | 57 | 5.1 | | |
| | 동거 | 3 | 0.2 | | |

## 4. 패널자료(3개년도)

먼저 불균형 패널의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평균이 2.85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친구지지가 4.05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나이의 평균은 17세(표준편차 = .89),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수는 평균 7.17명(표준편차 = 5.77)이며, 거주지역 규모는 중소도시(44.8%)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47.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41.3%)이 차지하였다. 부모님의 결혼 상태로는 결혼(89.8%)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별(4.4%)과 이혼(4.3%)이 차지하였다.

균형 패널의 경우,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평균이 2.85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친구지지가 4.05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나이의 평균은 17세(표준편차 = .89),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수는 평균 7.2명(표준편차 = 5.85)이며, 거주지역 규모는 중소도시(44.5%)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47.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41.5%)이 차지하였다. 부모님의 결혼 상태로는 결혼(89.8%)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별(4.4%)과 이혼(4.3%)이 차지하였다.

[표 4-4] 불균형 패널과 균형 패널의 기술통계

| | 불균형 패널(N=3,603) | | 균형 패널(N=3,414)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삶의 만족도 | 2.85 | .57 | 2.85 | .57 |
| 가족지지 | 3.17 | .56 | 3.17 | .56 |
| 친구지지 | 4.05 | .72 | 4.05 | .70 |
| 교사지지 | 3.88 | .77 | 3.88 | .76 |
| 다문화가정 정책 수혜 여부 | .17 | .37 | .17 | .38 |
| 나이 | 17 | .89 | 17 | .89 |
| ln월평균 가구소득 | 5.52 | .46 | 5.52 | .46 |
| 국가정체성 | 2.89 | .64 | 2.90 | .64 |
| 다문화수용성 | 3.22 | .55 | 3.22 | .54 |

| | | | | | |
|---|---|---|---|---|---|
| 신체만족도(외모) | | 2.62 | .43 | 2.61 | .43 |
| 친한 친구의 수 | | 7.17 | 5.77 | 7.2 | 5.85 |
| 학교생활 만족도 | | 3.73 | .83 | 3.74 | .83 |
|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사람 | | .23 | .46 | .30 | .46 |
| | | 불균형 패널(N=3,603) | | 균형 패널(N=3,414) | |
| |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 성별 | 남 | 1,764 | 49 | 1,677 | 49 |
| | 여 | 1,839 | 51 | 1,737 | 51 |
| 거주지역 규모 | 읍/면 | 1,083 | 30.1 | 1,042 | 30.5 |
| | 중소도시 | 1,615 | 44.8 | 1,519 | 44.5 |
| | 대도시 | 905 | 25.1 | 853 | 25 |
| 어머니 학력 | 중졸 이하 | 394 | 11 | 375 | 11 |
| | 고졸 | 1,701 | 47.3 | 1,602 | 47.1 |
| | 대학교 졸업 | 1,485 | 41.3 | 1,416 | 41.5 |
| |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 17 | 0.5 | 15 | 0.4 |
| 부모님 결혼 상태 | 결혼 | 3,174 | 89.8 | 3,012 | 89.8 |
| | 이혼 | 151 | 4.3 | 144 | 4.3 |
| | 별거 | 40 | 1.1 | 38 | 1.1 |
| | 사별 | 156 | 4.4 | 150 | 4.4 |
| | 동거 | 13 | 0.4 | 12 | 0.4 |

##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실증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사차수마다, 불균형 패널과 균형 패널 모두를 대상으로 각각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T차 조사(2017년)

2017년 T차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모든 변수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는 가족지지($r$ = .42 ; $p$ < .05), 친구지지($r$ = .37 ; $p$ < .05), 교사지지($r$ = .33 ; $p$ < .05)와 각각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아래 [표 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5] T차 조사(2017년)의 변수 간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1) 삶의 만족도 | 1 | | | | | | | | | | | | | | | | |
| (2) 가족지지 | .42* | 1 | | | | | | | | | | | | | | | |
| (3) 친구지지 | .37* | .40* | 1 | | | | | | | | | | | | | | |
| (4) 교사지지 | .33* | .41* | .52* | 1 | | | | | | | | | | | | | |
| (5) 다문화가족 정책 수혜 여부 | -.01 | -.05 | .01 | .01 | 1 | | | | | | | | | | | | |
| (6) 성별 | -.12* | -.04 | .04 | -.05 | .02 | 1 | | | | | | | | | | | |
| (7) 나이 | -.04 | -.00 | -.07* | .01 | -.00 | -.01 | 1 | | | | | | | | | | |
| (8) 거주지역 규모 | .08* | .01 | .08* | .09* | -.02 | .05 | .00 | 1 | | | | | | | | | |
| (9) 어머니 학력 | .04 | .07* | .06* | .08* | .05 | -.02 | .00 | -.04 | 1 | | | | | | | | |
| (10) 월평균 소득 | .05 | .09* | .10* | .04 | -.17* | -.05 | -.01 | -.12* | .10* | 1 | | | | | | | |
| (11)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 | .06* | .10* | .14* | .14* | .06* | -.01 | -.02 | -.06* | .06* | .11* | 1 | | | | | | |
| (12) 부모님 결혼상태 | -.05 | -.02 | -.04 | -.01 | .09* | -.01 | -.02 | -.03 | -.02 | -.28* | .00 | 1 | | | | | |
| (13) 국가정체성 | .24* | .33* | .26* | .28* | .02 | .06* | .04 | -.02 | .07* | .02 | -.01* | .01 | 1 | | | | |
| (14) 신체만족도(외모) | .50* | .27* | .31* | .27* | .00 | -.01* | -.03 | .08* | .07* | .06* | -.06* | .00 | .20* | 1 | | | |
| (15) 친한 친구의 수 | .16* | .09* | .20* | .13* | .03 | -.13* | -.00 | .04 | .03 | .00 | -.06* | -.02 | .11* | .13* | 1 | | |
| (16) 다문화수용성 | .15* | .25* | .27* | .22* | .05 | .11* | .01 | -.00 | .08* | .02 | -.11* | -.00 | .21* | .18* | .05 | 1 | |
| (17) 학교생활 만족도 | .41* | .26* | .42* | .41* | -.00 | -.11* | -.06* | .11* | .07* | .04 | -.07* | -.05 | .20* | .03* | .13* | .14* | 1 |

* $p < .05$

## 2. T+1차 조사(2018년)

2018년 T+1차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모든 변수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는 가족지지($r$ = .47 ; $p$ < .05), 친구지지($r$ = .42 ; $p$ < .05), 교사지지($r$ = .35 ; $p$ < .05)와 각각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아래 [표 4-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6] T+1차 조사(2018년)의 변수 간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1) 삶의 만족도 | 1 | | | | | | | | | | | | | | | | |
| (2) 가족지지 | .47* | 1 | | | | | | | | | | | | | | | |
| (3) 친구지지 | .42* | .44* | 1 | | | | | | | | | | | | | | |
| (4) 교사지지 | .35* | .36* | .56* | 1 | | | | | | | | | | | | | |
| (5) 다문화가족 정책 수혜 여부 | .04 | .04 | .03 | .03 | 1 | | | | | | | | | | | | |
| (6) 성별 | -.14* | -.01* | .03 | -.01* | .05 | 1 | | | | | | | | | | | |
| (7) 나이 | -.01 | -.01 | -.03 | -.01 | .02 | -.01 | 1 | | | | | | | | | | |
| (8) 거주지역 규모 | .10* | -.02 | .04 | .08* | .05 | .05 | .00 | 1 | | | | | | | | | |
| (9) 어머니 학력 | .02 | .05 | .05 | .07* | .06* | -.02 | .01 | -.05 | 1 | | | | | | | | |
| (10) 월평균 소득 | .03 | .07* | .06* | .00 | -.13* | -.02 | -.02 | -.12* | .10* | 1 | | | | | | | |
| (11)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 | .07* | .10* | .15* | .15* | .08* | -.02 | -.00 | -.08* | .06* | .08* | 1 | | | | | | |
| (12) 부모님 결혼상태 | -.05 | -.03 | -.01 | .01 | .07* | -.00 | -.03 | -.01 | -.01 | -.32* | -.01 | 1 | | | | | |
| (13) 국가정체성 | .28* | .36* | .34* | .36* | .08* | .03 | .01 | .05 | .05 | .02 | .01* | -.00 | 1 | | | | |
| (14 )신체만족도(외모) | .52* | .36* | .36* | .33* | .05 | -.10* | .00 | .07* | .07* | .01 | .06 | -.01 | .26* | 1 | | | |
| (15) 친한 친구의 수 | .14* | .09* | .19* | .12* | -.02 | -.16* | .03 | .04 | -.03 | .01 | .05 | .01 | .10* | .13* | 1 | | |
| (16) 다문화수용성 | .18* | .27* | .31* | .21* | .12* | .14* | -.05 | .02 | .09* | .06* | .08* | -.00 | .27* | .22* | .01 | 1 | |
| (17) 학교생활 만족도 | .45* | .30* | .45* | .49* | .00 | -.08* | -.05 | .11* | .04 | .02 | .13* | -.02 | .30* | .33* | .15* | .16* | 1 |

* $p < .05$

### 3. T+2차 조사(2019년)

2019년 T+2차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모든 변수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는 가족지지($r$ = .49 ; $p$ < .05), 친구지지($r$ = .37 ; $p$ < .05), 교사지지($r$ = .40 ; $p$ < .05)와 각각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아래 [표 4-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7] T+2차 조사(2019년)의 변수 간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1) 삶의 만족도 | 1 | | | | | | | | | | | | | | | | |
| (2) 가족지지 | .49* | 1 | | | | | | | | | | | | | | | |
| (3) 친구지지 | .37* | .40* | 1 | | | | | | | | | | | | | | |
| (4) 교사지지 | .40* | .40* | .56* | 1 | | | | | | | | | | | | | |
| (5) 다문화가족 정책 수혜 여부 | .02 | .03 | .04 | .03 | 1 | | | | | | | | | | | | |
| (6) 성별 | -.07* | -.04 | .05 | -.06 | .03 | 1 | | | | | | | | | | | |
| (7) 나이 | .01 | -.04 | -.01 | .03 | -.01 | -.02 | 1 | | | | | | | | | | |
| (8) 거주지역 규모 | -.07* | .01 | -.04 | -10* | -.00 | -.06* | .00 | 1 | | | | | | | | | |
| (9) 어머니 학력 | -.01 | .04 | .06 | .04 | .01 | -.01 | -.02 | .05 | 1 | | | | | | | | |
| (10) 월평균 소득 | .08* | .09* | .10* | .11* | -.13* | -.02 | -.06* | .11* | .08* | 1 | | | | | | | |
| (11)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 | .10* | .13* | .17* | .16* | .12* | .04 | -.06* | -.01 | .02 | .08* | 1 | | | | | | |
| (12) 부모님 결혼상태 | -.03 | -.05 | -.05 | -.05 | .07* | -.00 | -.03 | -.02 | -.01 | -.30* | -.02 | 1 | | | | | |
| (13) 국가정체성 | .31* | .34* | .35* | .32* | -.00 | .07* | -.05 | -.08* | .05 | .05 | .09* | .00 | 1 | | | | |
| (14) 신체만족도(외모) | .53* | .31* | .33* | .28* | .04 | -.05 | .05 | -.06 | .04 | .06 | .12* | -.04 | .24* | 1 | | | |
| (15) 친한 친구의 수 | .17* | .12* | .20* | .13* | .01 | -.12* | -.01 | -.01 | .01 | -.01 | .14* | -.00 | .12* | .13* | 1 | | |
| (16) 다문화수용성 | .17* | .25* | .34* | .23* | .07* | .19* | -.05 | .02 | .04 | .02 | .13* | -.00 | .29* | .20* | .04 | 1 | |
| (17) 학교생활 만족도 | .43* | .31* | .45* | .48* | .01 | -.06 | -.05 | -.14* | .01 | .07* | .09* | -.03 | .31* | .38* | .12* | .16* | 1 |

* $p < .05$

### 4. 불균형 패널 (N = 1,201*3)

불균형 패널에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3개의 독립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는 가족지지($r$ = .46 ; $p$ < .05), 친구지지($r$ = .38 ; $p$ < .05), 교사지지($r$ = .36 ; $p$ < .05)와 각각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아래 [표 4-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8] 불균형 패널의 변수 간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1) 삶의 만족도 | 1 | | | | | | | | | | | | | | | | |
| (2) 가족지지 | .46* | 1 | | | | | | | | | | | | | | | |
| (3) 친구지지 | .38* | .41* | 1 | | | | | | | | | | | | | | |
| (4) 교사지지 | .36* | .39* | .55* | 1 | | | | | | | | | | | | | |
| (5) 다문화가족 정책 수혜 여부 | .02 | .01 | .02 | .02 | 1 | | | | | | | | | | | | |
| (6) 성별 | -.11* | -.06* | .04* | -.07* | .03 | 1 | | | | | | | | | | | |
| (7) 나이 | -.03 | .01 | .01 | .04* | -.03* | -.01 | 1 | | | | | | | | | | |
| (8) 거주지역 규모 | -.08* | .00 | -.06* | -.09* | -.01 | -.05* | -.00 | 1 | | | | | | | | | |
| (9) 어머니 학력 | .01 | .05* | .06* | .05* | .05* | -.02 | -.01 | .03 | 1 | | | | | | | | |
| (10) 월평균 소득 | .05* | .08* | .08* | .05* | -.14* | -.03 | .04* | .12* | .09* | 1 | | | | | | | |
| (11)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 | .08* | .11* | .15* | .15* | .08* | .00 | .04* | .04* | .05* | .09* | -.01 | | | | | | |
| (12) 부모님 결혼상태 | -.04* | -.04* | -.04* | -.00 | .07* | -.00 | .01 | .01 | -.02 | -.30* | -.01 | 1 | | | | | |
| (13) 국가정체성 | .28* | .34* | .32* | .32* | .03 | .05* | .03* | -.04* | .05* | .03 | .11* | .00 | 1 | | | | |
| (14) 신체만족도(외모) | .52* | .31* | .33* | .29* | .03 | -.08* | .01 | -.07* | .06* | .04* | .08* | -.02 | .24 | 1 | | | |
| (15) 친한 친구의 수 | .15* | .10* | .19* | .12* | .01 | -.14* | -.07* | -.04* | .01 | -.00 | .07* | -.01 | .10* | .13* | 1 | | |
| (16) 다문화수용성 | .16* | .25* | .31* | .22* | .08* | .14* | .05* | .00 | .06* | .04* | .11* | -.00 | .26* | .20* | .04 | 1 | |
| (17) 학교생활 만족도 | .43* | .29* | .44* | .46* | .00 | -.08* | -.00 | -.12* | .04* | .04* | .10* | -.03 | .26* | .33* | .13* | .16* | 1 |

* $p < .05$

### 5. 균형 패널 (N = 1,138*3)

균형 패널에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3개의 독립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는 가족지지($r$ = .46 ; $p$ < .05), 친구지지($r$ = .39 ; $p$ < .05), 교사지지($r$ = .36 ; $p$ < .05)와 각각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아래 [표 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9] 균형 패널의 변수 간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1) 삶의 만족도 | 1 | | | | | | | | | | | | | | | | |
| (2) 가족지지 | .46* | 1 | | | | | | | | | | | | | | | |
| (3) 친구지지 | .39* | .42* | 1 | | | | | | | | | | | | | | |
| (4) 교사지지 | .36* | .40* | .55* | 1 | | | | | | | | | | | | | |
| (5) 다문화가족 정책 수혜 여부 | .02 | .01 | .02 | .02 | 1 | | | | | | | | | | | | |
| (6) 성별 | -.10* | -.06* | .04* | -.07* | .03* | 1 | | | | | | | | | | | |
| (7) 나이 | -.02 | .00 | .01 | .03* | -.04* | -.01 | 1 | | | | | | | | | | |
| (8) 거주지역 규모 | -.08* | .01 | -.06* | -.10* | -.01 | -.06* | .00 | 1 | | | | | | | | | |
| (9) 어머니 학력 | .02 | .05* | .05* | .07* | .04* | -.01 | .00 | .06* | 1 | | | | | | | | |
| (10) 월평균 소득 | .05* | .08* | .09* | .06* | -.14* | -.02 | .05* | .12* | .08* | 1 | | | | | | | |
| (11)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 | .08* | .12* | .15* | .15* | .08* | -.00 | .04* | .04* | .05* | .09* | 1 | | | | | | |
| (12) 부모님 결혼상태 | -.04* | -.03* | -.04* | -.02 | .07* | -.00 | .01 | .00 | -.01 | -.30* | -.01 | 1 | | | | | |
| (13) 국가정체성 | .28* | .35* | .31* | .32 | .03 | .06* | .03 | -.05* | .05* | .04* | .10* | -.00 | 1 | | | | |
| (14) 신체만족도(외모) | .51* | .32* | .34* | .30* | .03 | -.07* | .01 | -.07* | .06* | .03 | .08* | -.01 | .25* | 1 | | | |
| (15) 친한 친구의 수 | .16* | .10* | .18* | .12* | .012 | -.14* | -.07* | -.04* | .00 | -.01 | .07* | -.01 | .10* | .13* | 1 | | |
| (16) 다문화수용성 | .16* | .25* | .30* | .22* | .08* | .14* | .04 | .00 | .06* | .03* | .10* | .00 | .26* | .20* | .02 | 1 | |
| (17) 학교생활 만족도 | .43* | .28* | .45* | .47* | -.00 | -.08* | -.01 | -.12* | .03* | .05* | .10* | -.03* | .26* | .34* | .13* | .15* | 1 |

* $p < .05$

##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문항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기초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단계에서 불균형 패널과 균형 패널의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아 패널고정효과 단계부터는 균형 패널 데이터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 가구에 2명 이상의 다문화청소년이 응답한 경우가 있기에 가구 수와 관측치의 값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문화청소년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규모, 월 평균 가구소득, 어머니 학력, 부모님 결혼 상태, 국가정체성, 다문화수용성, 신체만족도(외모), 친한 친구의 수,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 유무를 통제하고, 삶의 만족도를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각 조사 차수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VIF가 10을 넘거나 공차한계가 .1 이하일 경우 다중공선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회귀분석의 전제 가정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을 통한 VIF와 공차한계의 결과는 아래 [표 4-10]과 같다. 분석 결과, VIF는 최소 1.02에서 최대 1.77 사이로 진단 기준인 10에 비교하였을 때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공차한계 또한 .57에서 .98 사이로 모두 .1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0] 다중공선성 결과

| 변수 | VIF | 공차한계(1/VIF) |
|---|---|---|
| 가족지지 | 1.40 | .72 |
| 친구지지 | 1.77 | .57 |
| 교사지지 | 1.68 | .60 |
| 다문화가족 정책 수혜 여부 | 1.04 | .96 |
| 성별 | 1.09 | .92 |
| 나이 | 1.02 | .98 |
| ln월평균 가구소득 | 1.17 | .86 |
| 국가정체성 | 1.26 | .79 |
| 다문화수용성 | 1.20 | .84 |
| 신체만족도 | 1.25 | .80 |
| 친한 친구의 수 | 1.08 | .93 |
| 학교생활 만족도 | 1.45 | .69 |
|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사람 | 1.06 | .94 |
| 거주지역 규모 | 1.05 | .95 |
| 어머니 학력 | 1.02 | .98 |
| 부모님 결혼상태 | 1.10 | .91 |

### 1. T차 조사(2017년)

2017년 조사에서는 유의수준 5%하에서 교사지지를 제외한 독립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족지지는 1단위 증가할 때, 삶의 만족도는 .23만큼 증가하고, 친구지지가 1단위 커질 때, 삶의 만족도는 .06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사회적지지 중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가 영향력이 더 높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 신체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여학생일수록 더 높은 삶의 만족도가 나타난다. 이는 아래의 [표 4-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11] T차 조사(2017년)의 회귀분석 결과

| 삶의 만족도 | 계수 | 표준오차 | t | p | [95% conf. | interval] |
|---|---|---|---|---|---|---|
| 가족지지 | .23 | .03 | 8.8 | .00*** | .17 | .28 |
| 친구지지 | .06 | .02 | 2.58 | .01* | .01 | .10 |
| 교사지지 | .01 | .02 | .47 | .64 | -.03 | .05 |
|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 | .00 | .03 | .10 | .92 | -.05 | .06 |
| 성별 | -.06 | .02 | -2.23 | .02* | -.10 | -.01 |
| 나이 | -.31 | .54 | -.56 | .57 | -1.4 | .77 |
| ln월평균 가구소득 | -.01 | .03 | -.43 | .66 | -.07 | .04 |
| 국가정체성 | .04 | .02 | 1.77 | .07 | -.00 | .08 |
| 다문화수용성 | -.02 | .02 | -.76 | .44 | -.07 | .03 |
| 신체만족도 | .44 | .03 | 13.85 | .00*** | .38 | .50 |
| 친한 친구 수 | .00 | .00 | 1.63 | .10 | -.00 | .01 |
| 학교생활 만족도 | .13 | .02 | 7.49 | .00*** | .09 | .16 |
|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 | .02 | .03 | .57 | .56 | -.04 | .07 |
| 거주지역 규모 | .01 | .01 | .7 | .48 | -.02 | .04 |
| 어머니 학력 | -.01 | .01 | -1.0 | .31 | -.04 | .01 |
| 부모님 결혼상태 | -.02 | .02 | -1.1 | .30 | -.06 | .02 |
| Constant | 1.27 | 1.54 | .82 | .41 | -1.75 | 4.28 |
| Number of obs | 1,231 | | | | | |
| R-squared | .40 | | | | | |
| F-test | 35.54 | | | | | |
| Prob > F | .00 | | | | | |

* $p < .05$, ** $p < .01$, *** $p < .001$

## 2. T+1차 조사(2018년)

2018년 조사에서는 유의수준 5%하에서 교사지지를 제외한 독립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족지지는 1단위 증가할 때, 삶의 만족도는 .24만큼 증가하고, 친구지지가 1단위 커질 때, 삶의 만족도는 .09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가 영향력이 더 높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 신체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거주지역 규모는 삶의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정체성, 신체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고 규모가 큰 거주지역에 사는 여학생일수록 더 높은 삶의 만족도가 나타난다. 이는 아래의 [표 4-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12] T+1차 조사(2018년)의 회귀분석 결과

| 삶의 만족도 | 계수 | 표준오차 | t | p | [95% conf. | interval] |
|---|---|---|---|---|---|---|
| 가족지지 | .24 | .03 | 8.76 | .00*** | .19 | .29 |
| 친구지지 | .09 | .02 | 3.86 | .00*** | .05 | .14 |
| 교사지지 | -.02 | .02 | -.99 | .33 | -.06 | .02 |
|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 | .01 | .04 | .36 | .72 | -.06 | .08 |
| 성별 | -.09 | .03 | -3.34 | .00*** | -.14 | -.04 |
| 나이 | .18 | .63 | .29 | .77 | -1.05 | 1.42 |
| ln월평균 가구소득 | -.01 | .03 | -.18 | .86 | -.06 | .05 |
| 국가정체성 | .03 | .02 | 1.29 | .20 | -.02 | .07 |
| 다문화수용성 | -.01 | .03 | -.54 | .59 | -.07 | .04 |
| 신체만족도 | .42 | .03 | 12.48 | .00*** | .33 | .49 |
| 친한 친구 수 | .00 | .00 | .26 | .79 | -.00 | .00 |
| 학교생활 만족도 | .15 | .02 | 8.10 | .00*** | .12 | .19 |
|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 | .02 | .03 | .55 | .58 | -.04 | .07 |
| 거주지역 규모 | .04 | .02 | 2.30 | .02* | .00 | .08 |
| 어머니 학력 | -.02 | .01 | -1.23 | .22 | -.05 | .01 |
| 부모님 결혼상태 | -.03 | .02 | -1.50 | .14 | -.07 | .01 |
| Constant | -.33 | 1.81 | -.18 | .85 | -3.88 | 3.21 |
| Number of obs | 1,173 | | | | | |
| R-squared | .43 | | | | | |
| F-test | 38.19 | | | | | |
| Prob > F | .00 | | | | | |

* $p < .05$, ** $p < .01$, *** $p < .001$

### 3. T+2차 조사(2019년)

2019년 조사에서는 유의수준 5%하에서 친구지지를 제외한 독립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족지지는 1단위 증가할 때, 삶의 만족도는 .28단위 증가하고, 교사지지가 1단위 커질 때, 삶의 만족도는 .07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와 교사지지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가 영향력이 더 높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국가정체성, 신체만족도, 친한 친구의 수, 학교생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정체성, 신체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고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아래의 [표 4-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13] T+2차 조사(2019년)의 회귀분석 결과

| 삶의 만족도 | 계수 | 표준오차 | t | p | [95% conf. | interval] |
|---|---|---|---|---|---|---|
| 가족지지 | .28 | .03 | 10.38 | .00*** | .23 | .33 |
| 친구지지 | .01 | .02 | .56 | .58 | -.03 | .06 |
| 교사지지 | .07 | .02 | 3.27 | .00*** | .03 | .11 |
|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 | -.01 | .04 | -.14 | .89 | -.08 | .07 |
| 성별 | -.02 | .03 | -0.7 | .50 | -.07 | .04 |
| 나이 | .14 | .68 | .21 | .83 | -1.18 | 1.48 |
| ln월평균 가구소득 | .02 | .03 | .78 | .44 | -.36 | .08 |
| 국가정체성 | .05 | .02 | 2.15 | .03* | .00 | .09 |
| 다문화수용성 | -.03 | .03 | -1.21 | .23 | -.08 | .02 |
| 신체만족도 | .47 | .03 | 13.75 | .00*** | .40 | .53 |
| 친한 친구 수 | .01 | .00 | 2.36 | .02* | .00 | .01 |
| 학교생활 만족도 | .10 | .02 | 5.00 | .00*** | .06 | .14 |
|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 | .01 | .03 | .52 | .60 | -.04 | .07 |
| 거주지역 규모 | .01 | .02 | .34 | .73 | -.03 | .04 |
| 어머니 학력 | -.02 | .01 | -1.17 | .24 | -.05 | .01 |
| 부모님 결혼상태 | .01 | .02 | .69 | .49 | -.02 | .05 |
| Constant | -.49 | 1.99 | -.25 | .80 | -4.40 | 3.41 |
| Number of obs | 1,121 | | | | | |
| R-squared | .44 | | | | | |
| F-test | 38.97 | | | | | |
| Prob > F | .00 | | | | | |

* $p < .05$, ** $p < .01$, *** $p < .001$

### 4. 불균형 패널 (N=1,201*3)

불균형 패널에서는 유의수준 5%하에서 독립변수 중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족지지가 1단위 증가할 때, 삶의 만족도는 .25단위 증가하고, 친구지지가 1단위 커질 때, 삶의 만족도는 .05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가 영향력이 더 높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 나이, 국가정체성, 신체만족도, 친한 친구의 수, 학교생활 만족도, 거주지역 규모, 어머니 학력은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정체성, 신체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거주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여학생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가 나타난다. 이는 아래의 [표 4-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14] 불균형 패널 조사의 회귀분석 결과

| 삶의 만족도 | 계수 | 표준오차 | t | p | [95% conf. | interval] |
|---|---|---|---|---|---|---|
| 가족지지 | .25 | .02 | 16.32 | .00*** | .22 | .28 |
| 친구지지 | .05 | .01 | 3.96 | .00*** | .03 | .08 |
| 교사지지 | .02 | .01 | 1.63 | .10 | -.00 | .04 |
|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 | .01 | .02 | .33 | .73 | -.03 | .05 |
| 성별 | -.05 | .02 | -3.58 | .00*** | -.08 | -.02 |
| 나이 | -.02 | .01 | -2.85 | .00*** | -.04 | -.01 |
| ln월평균 가구소득 | .00 | .02 | .18 | .86 | -.03 | .04 |
| 국가정체성 | .04 | .01 | 2.97 | .00*** | .013 | .06 |
| 다문화수용성 | -.02 | .01 | -1.45 | .15 | -.05 | .01 |
| 신체만족도 | .44 | .02 | 23.28 | .00*** | .41 | .48 |
| 친한 친구 수 | .00 | .00 | 2.34 | .02* | .00 | .01 |
| 학교생활 만족도 | .13 | .01 | 11.99 | .00*** | .11 | .15 |
|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 | -.14 | .02 | -.88 | .38 | -.05 | .02 |
| 거주지역 규모 | -.02 | .01 | -2.01 | .05** | -.04 | -.00 |
| 어머니 학력 | -.03 | .01 | -2.59 | .01** | -.05 | -.01 |
| 부모님 결혼상태 | -.01 | .01 | -1.21 | .22 | -.03 | .01 |
| Constant | .60 | .18 | 3.37 | .00 | .25 | .95 |
| Number of obs | 3,525 | | | | | |
| R-squared | .42 | | | | | |
| F-test | 159.83 | | | | | |
| Prob > F | .00 | | | | | |

* $p < .05$, ** $p < .01$, *** $p < .001$

### 5. 균형 패널 (N=1,138*3)

균형 패널의 회귀분석 결과는 불균형 패널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균형 패널에서는 유의수준 5%하에서 독립변수 중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족지지가 1단위 증가할 때, 삶의 만족도는 .25단위 증가하고, 친구지지가 1단위 커질 때, 삶의 만족도는 .05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가 영향력이 더 높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 나이, 국가정체성, 신체만족도, 친한 친구의 수, 학교생활 만족도, 거주지역 규모가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정체성, 신체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거주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여학생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가 나타난다. 이는 아래의 [표 4-1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4-15] 균형 패널 조사의 회귀분석 결과

| 삶의 만족도 | 계수 | 표준오차 | t | p | [95% conf. | interval] |
|---|---|---|---|---|---|---|
| 가족지지 | .25 | .02 | 15.59 | .00*** | .22 | .28 |
| 친구지지 | .05 | .01 | 3.55 | .00*** | .02 | .08 |
| 교사지지 | .02 | .01 | 1.76 | .08 | -.00 | .05 |
|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 | .01 | .02 | .35 | .72 | -.03 | .05 |
| 성별 | -.05 | .02 | -3.42 | .00*** | -.08 | -.02 |
| 나이 | -.02 | .01 | -2.27 | .02* | -.04 | -.00 |
| ln월평균 가구소득 | .00 | .02 | .08 | .93 | -.03 | .04 |
| 국가정체성 | .04 | .01 | 3.00 | .00*** | .01 | .07 |
| 다문화수용성 | -.02 | .02 | -1.28 | .20 | -.05 | .01 |
| 신체만족도 | .43 | .02 | 21.81 | .00*** | .39 | .47 |
| 친한 친구 수 | .00 | .00 | 2.55 | .01* | .00 | .01 |
| 학교생활 만족도 | .13 | .01 | 11.54 | .00*** | .11 | .15 |
|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 | -.01 | .02 | -.58 | .57 | -.04 | .02 |
| 거주지역 규모 | -.02 | .01 | -2.19 | .03* | -.04 | -.00 |
| 어머니 학력 | -.01 | .01 | -1.42 | .16 | -.03 | .00 |
| 부모님 결혼상태 | -.01 | .01 | -1.30 | .20 | -.04 | .01 |
| Constant | .53 | .18 | 2.93 | .00 | .18 | .89 |
| Number of obs | 3,347 | | | | | |
| R-squared | .41 | | | | | |
| F-test | 147.55 | | | | | |
| Prob > F | .00 | | | | | |

* $p < .05$, ** $p < .01$, *** $p < .001$

## 제 4 절 패널고정효과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제7~9차년도의 자료를 구성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패널 회귀모형을 선택할 때,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먼저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모델이라고 판단하였다.

아래 [표 4-16]의 모형1은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30%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개인수준 통제변수 중 나이($\beta$=-.02, p<.001)는 삶의 만족도와 음(-)의 관계를, 국가정체성($\beta$=.07, p<.001), 다문화수용성($\beta$=.09, p<.001), 신체만족도($\beta$=.36, p<.001), 학교생활 만족도($\beta$=.10, p<.001)는 삶의 만족도와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2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하위문항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사용하고, 조절변수인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를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39%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beta$=.21, p<.001)와 친구지지($\beta$=.06, p<.001)는 삶의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설 1-1>과 <가설 1-2>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모형3에서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9%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형2에서는 조절변수인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가족지지와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경우 유의한 부(-)적 관계($\beta$=-.13, p<.05)가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지 않는 변수이며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순수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정책의 수혜 여부는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지지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나,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는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 양의 관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즉, 가족지지가 높아지더라도 다문화가족정책을 수혜 받지 않은 집단이 수혜 받은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6] 조절효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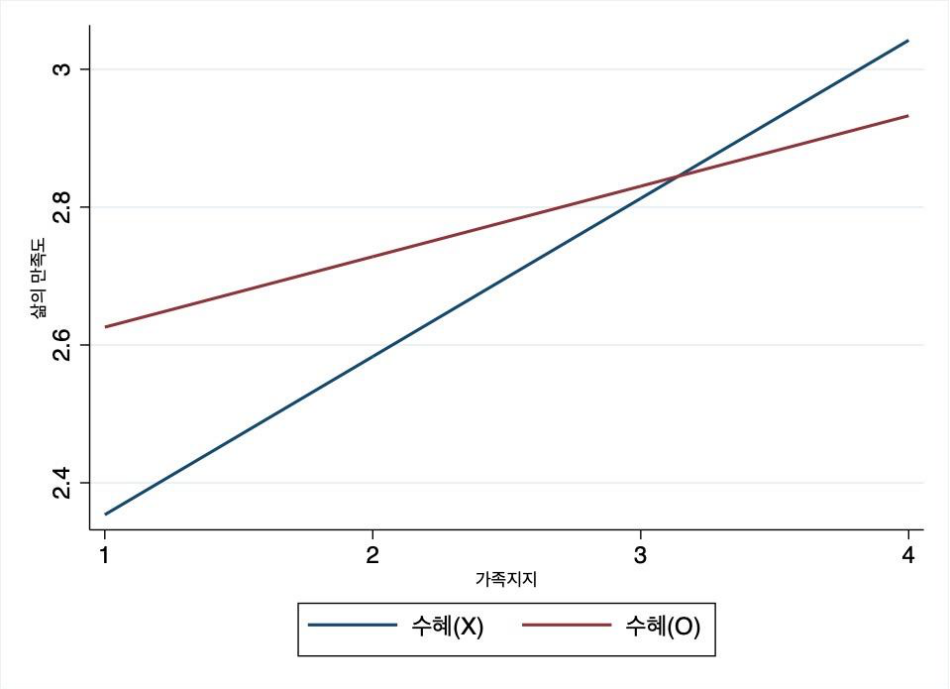
| | 모형1 | | | 모형2 | | | 모형3 | | |
|---|---|---|---|---|---|---|---|---|---|
| | $\beta$ | SE | t | $\beta$ | SE | t | $\beta$ | SE | t |
| **통제변수** | | | | | | | | | |
| 성별 | 0 | (omitted) | | 0 | (omitted) | | 0 | (omitted) | |
| 나이 | -.02 | .00 | -3.10 *** | -.03 | .01 | -3.31 *** | -.02 | .01 | -3.15 *** |
| ln월평균 가구소득 | -.05 | .04 | -1.22 | -.04 | .04 | -1.17 | -.04 | .04 | -1.17 |
| 국가정체성 | .07 | .02 | 2.99 *** | .03 | .02 | 1.62 | .03 | .02 | 1.54 |
| 다문화수용성 | .09 | .02 | 3.97 *** | .07 | .02 | 2.91 *** | .07 | .02 | 3.00 *** |
| 신체만족도 | .36 | .03 | 10.33 *** | .30 | .03 | 9.19 *** | .30 | .03 | 9.36 *** |
| 친한 친구의 수 | .00 | .00 | 1.19 | .00 | .00 | .86 | .00 | .00 | .85 |
| 학교생활 만족도 | .10 | .01 | 6.50 *** | .07 | .01 | 5.08 *** | .07 | .01 | 5.04 *** |
|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사람 | .04 | .02 | 1.65 ** | .03 | .02 | 1.25 | .03 | .02 | 1.27 |
| 거주지역 규모 | .07 | .12 | .62 | .01 | .12 | .10 | .01 | .13 | .06 |
| 어머니 학력 | 0 | (omitted) | | 0 | (omitted) | | 0 | (omitted) | |
| 부모님 결혼상태 | -.04 | .04 | -.88 | -.04 | .04 | -.90 | -.04 | .04 | -.94 |

| | 모형1 | | | 모형2 | | | 모형3 | | |
|---|---|---|---|---|---|---|---|---|---|
| | $\beta$ | SE | t | $\beta$ | SE | t | $\beta$ | SE | t |
| **조절변수** | | | | | | | | | |
|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 | | | | -.00 | .03 | -.17 | .34 | .18 | 1.88 ** |
| **독립변수** | | | | | | | | | |
| 가족지지 | | | | .21 | .03 | 7.66 *** | .23 | .03 | 7.94 *** |
| 친구지지 | | | | .06 | .02 | 3.14 *** | .06 | .02 | 3.17 *** |
| 교사지지 | | | | .01 | .02 | .83 | .01 | .02 | .51 |
| **상호작용** | | | | | | | | | |
| 가족지지 X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 | | | | | | | -.13 | .06 | -2.30 * |
| 친구지지 X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 | | | | | | | -.01 | .04 | -.19 |
| 교사지지 X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 | | | | | | | .02 | .04 | .58 |
| N | 3,347 | | | 3,347 | | | 3,347 | | |
| $R^2$ | .30 | | | .39 | | | .39 | | |
| AIC | 1331.98 | | | 1166.15 | | | 1158.81 | | |

* $p < .05$, ** $p < .01$, *** $p < .001$

모형3 가족지지의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에 대한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추정 회귀선은 다음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




가로축은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 하위문항 가족지지이며, 세로축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를 가리킨다.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에 따른 상호작용항 그래프를 살펴보면, 가족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의 기울기는 다문화가족정책을 수혜 받지 않은 집단이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 제 5 장 논 의

## 제 1 절 분석 결과 요약 및 해석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를 조절하는 다문화가족 정책 수혜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지지는 모든 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보인다. 각 조사 년도마다의 결과를 살펴보면 T차년도에는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T+1차년도에서도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T+2차년도에서는 가족지지와 교사지지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다음 [표 5-1]에서 단년도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연도별 다중회귀 분석 결과

| | T차년도 (2017년) | T+1차년도 (2018년) | T+2차년도 (2019년) |
|---|---|---|---|
| 가족지지 | .23*** | .24*** | .28*** |
| 친구지지 | .06*** | .09*** | - |
| 교사지지 | - | - | .07*** |

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회귀 계수는 표시하지 않음

사회적 지지 하위 문항 중 가족지지는 모든 년도 유의수준 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23, .24, .28로 꾸준히 증가하여 T+2차년도에 가장 높은 값을 가졌다. 본 연구에서는 총 3개차년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지지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다문화청소년이 성장하며 가정 내의 상황이 안정되고 가족지지가 높아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친구지지는 T차, T+1차년도에 .06, .09로 증가하였지만 T+2차년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교사지지는 T차년도와 T+1차년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T+2차년도에서는 .07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단년도 분석에서도 가족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가장 크다.

다음으로 모든 조사 년도를 합친 불균형 패널 자료와 그 중 모든 차수의 설문에 참여한 관측지만을 정제한 균형 패널 자료를 패널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2]와 같다.

[표 5-2] 패널 자료의 분석 결과

| | 불균형 패널(N=3,525) | 균형 패널(N=3,414) |
|---|---|---|
| 가족지지 | .21*** | .20*** |
| 친구지지 | .06*** | .06*** |
| 교사지지 | - | - |

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회귀 계수는 표시하지 않음

불균형 패널과 균형 패널 모두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각각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가설 1-1> 가족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1-2> 친구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지지한다. 반면, 교사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가설 1-3> 교사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지지는 단년도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가장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의 연령이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있기는 하나, 교사의 영향력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줄어든다는 Bierman(2011)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는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한다. 패널회귀모형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불균형 패널과 균형 패널 모두 가족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각각 삶의 만족도에 음(-)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즉,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는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만 완화한다는 점에서 '<가설 2-1>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는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는 지지할 수 없다.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가설 2-2>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는 친구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와 '<가설 2-3>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는 교사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를 지지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16개 시·도의 표본 학교 기준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하였고, 층 내에서는 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국제결혼 가정자녀로 다문화청소년의 네 가지 유형 중 선별된 집단이 가지는 특성에 의한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문화'라는 틀 안에서 구별화된 정책은 수혜 받는 집단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1,806명을 대상으로 지원 방식에 대한 조사하였는데,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1,058명(59%),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게 특별지원 해주어도 상관없다'는 748명(41%)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청소년들은 '다문

화'라는 이미지가 투영되어 사회적으로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낙인 대상이 되어 스스로가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제 2 절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 연구 대상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일반청소년, 노인, 결혼이주여성 등의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며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연구는 부족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다는 점과 분석대상이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연구 대상이라는 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다문화청소년이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이 가정, 학교,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언제든지 본인의 생활, 학업, 또래관계 등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필수적이며 반대로 비(非)다문화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다문화 관련 수업을 진행하여 친다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긍정적인 다문화수용성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심리적·교육적 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소속감을 높여줄 것이며 이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정책을 수혜 받은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다.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외부활동의 참여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은 초·중등학생과 비교하여 대학교 진학 또는 취업준비 등으로 정책프로그램 참여를 꺼릴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청소년의 대다수는 자신이 비(非)다문청소년과 비교해 특별히 다르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지원을 받아 또래들과의 소속감이 사라지고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넷째, 기존연구와의 상이한 결과이다. 선행연구(조성희 & 박소영, 2021)와 문헌검토를 통한 가설 설정에서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가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집단은 비수혜 집단 비해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족지지가 높은 다문화청소년은 정책 서비스를 통해 예상과 달리 삶의 만족도가 낮아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정책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보다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낮아지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정책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이 오히려 그들의 발달상 결핍되고 도움이 필요한 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정책의 역효과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양계민 외, 2017)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현상은 하위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 상위 단계의 욕구에 도달하게 되는 특징을 가진 Maslow의 욕구위계이론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다. 가족지지가 비교적 높은 다문화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다음 단계인 소속감 및 애정의 욕구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기에서의 소속감과 애정은 소속감에 대한 욕구로 자신과 서로 다른 집단과 구별을 지으며 소속감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문화청소년은 또래집단에 속하여 소속감을 느끼며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지만, 다

문화라는 배경 특성상 본인 스스로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정책 효과성에 있어 주목할 만한 시사점이며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을 재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 제 3 절 실천적 함의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선호도와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다문화수용성 역량을 기르고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개인적 차원에서 적응을 돕는 정책서비스는 많이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접근도 필수적이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된 교육, 또래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등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내용이나 지원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수혜자 입장에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다문화 관련 정책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해야한다. 다문화정책은 소외되고 배제되어 결핍된 존재에게 필요하다라는 인식, 다문화청소년이 특별히 분류된 집단이라는 인식 등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다문화청소년패널의 조사항목 중 선호하는 지원방식으로 '본인이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와 '본인이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지 특별지원 해주어도 상관없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들은 그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하며,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청소년을 비(非)다문청소년으로부터 구별하고 차별화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결핍된 존재 또는 문제 집단으로 인식하도

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은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을 경험하게 되며 다문화가족정책 서비스는 정책목표와 달리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하여 다문화가족정책 서비스를 실행함에 있어 다문화청소년이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밝히는 것이 아닌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가족지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족 단위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가족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가족 단위의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들의 주된 생활영역인 가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사회적 개입을 통해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접근과 그 효과성은 높을 것이다.

넷째,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이나 정책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을 비롯해 우리나라 사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와 서비스가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지원서비스 경험은 매우 낮은 편이다.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청소년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다문화청소년이 지역사회 자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들의 부모와 교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참여와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 4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중 제7차년도(2017년), 제8차년도(2018년), 제9차년도(2019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종단적 궤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모집단 분포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중 국제결혼가정자녀가 대다수이며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을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다양한 다문화청소년의 하위 유형들을 논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다문화청소년은 사회 및 학교 적응의 어려움으로 정규교육과정에서 이탈하거나 학업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청소년패널은 인적사항 등 기초 조사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세부화하여 수집해야 할 것이며, 후속연구에서는 세부화된 다문화청소년의 표본을 통해 집단 내 다양한 하위 유형별 발달 및 적응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패널데이터 응답자의 이탈현상과 부족한 수혜 여부의 수이다. 본 연구는 3개차년도의 패널데이터를 각 차수별로 분석하고 결측치를 완전히 제거한 균형 패널과 일부 결측치를 고려한 불균형 패널까지 분석함으로써 결측치를 고려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편향을 없애고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수혜자에 비하여 비수혜자의 수가 현저히 많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정책수혜자가 증가된 상태에서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대해 탐구하였지만 특정 시기에 연구 대상 간 비교를 통해 시기별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스스로 지각한 경제적 수준이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97%(3,271명), 다문화가족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3%(1,806명)인 것에 비해 실제 정책 지

원을 경험한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은 17%(578명)로 나타난 것은 다문화가족정책의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의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각 프로그램별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유형별 정책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의 단계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을 유형화한 연구나 정책 수혜자인 다문화청소년의 정책 수혜에 관한 인식 및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해석적 연구 등 다양한 차원의 정책 내용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제 5 절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중 2017년 7차 조사부터 2019년 9차 조사까지 총 3개년의 다문화청소년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인 체계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 문항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각각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사회환경체계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가 양자의 관계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지지 하위문항 중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통계적으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친구지지 보다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이론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서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학교는 직접적인 접촉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가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조절할 연구 가설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는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완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사회 서비스와 사회참여활동을 등 다문화가족정책의 긍정적 효과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상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이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와 같은 사회적 자원 변인의 관계 속에서 조사하여 개인 및 관계 차원의 자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준다는 것을 의의로 두며, 특히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에

잠재된 양면성을 보여주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 고찰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Maslow/오혜경 옮김. (2009). 동기와 성격. 파주 : 21세기북스.

곽금주. (1995). KLSSA 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 5-16.

곽삼근, 조혜선, & 윤혜경. (2005). 생애주기별 성역할 발달 및 갈등. 한국여성학, 21(2), 147-179.

김미예, & 임지영.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부모-자녀 응집성이 자아존중감 및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2(6), 879-888.

김민주, & 윤기봉. (2018).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373-388.

김서은, & 어주경. (2015).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장애수용정도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5(1), 19-35.

김소영, & 윤기봉. (2016).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271-296.

김은경, 정윤호, & 조대연.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교사관계,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 유·무에 따른 다집단분석. 교육문화연구, 28(4), 303-327.

김의철, &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김이선, 황정미, & 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Ⅰ):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2010). 다문화사회의 전개와'다문화'정책의 성격: 문화의제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34(1), 1-27.

김자영. (2020).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복지정책, 47(4), 33-58.

김정래. (2014). 교육목적으로서 '자기실현'의 재음미: 매슬로우의 이론을 단초로 한 논의, 교육철학연구, 36, 49-70.

김정엽. (2010).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복지행정논총, 20, 29-62.

김종백, & 김남희. (2014). 교사와 학생이 지각한 학생-교사 관계의 변화가 학생의 학교행복과 수업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2), 285-315.

김중혁, 황기식, & 송문석. (2019). 한국의 단일민족주의와 다문화 수용방안. 사회과학연구, 35(4), 177-202.

김태한, & 전영욱. (2021).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한 청소년학 연구동향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8(1), 75-93.

김현식, & 김두섭. (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자살행위. 한국사회학, 48(2), 35-66.

김홍석, & 이현정. (2008). 태권도 특기 · 적성활동 참가 초등학생들의 신체효능감이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7(1), 159-170.

남기민, & 정은경. (2011). 여성독거노인들이 인지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325-348.

노보람, & 최나야. (2020). 성장혼합모형(GMM)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변화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31(4), 191-222.
류동. (2021). 재한화교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고찰: 3/4 세대 화교가 한국에서 경험하는 지지망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4(1), 135-173.
민인식. (2012).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STATA. 고양: 지필미디어.
박경자, & 김송이.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 아동학회지, 28(5), 91-108.
박병선, & 배성우. (2012). 대인관계와 학교성적이 학교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학교급별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4(3), 215-238.
박소연, & 박소영. (2018).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결정 요인과 우울 증상에 관한 종단연구. 보건사회연구, 38(4), 129-163.
박영신, &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 87-115.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박자경. (2009). 사회적 지지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장애수용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수시과제보고서, 1-27.
박종관. (2015).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2), 222-233.
서영우. (2016).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생태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1(2), 55-102.
서희정, & 윤명희. (2018). 중고등학교 졸업예정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9(1), 71-98.
석말숙, & 구용근. (2015). 가족요인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55-74.
설진배, & 김소희. (2017). 다문화 배경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수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평화학연구, 18(1), 155-180.
성현란. (2011).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지역 다문화 가정.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2), 219-239.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송사리, & 박명숙. (2019).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문화정체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자기유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1(4), 30-60.
송연주, 김대현, & 이상수. (2015). 전환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3(2), 207-231.
신미, 전성희, &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신승배. (2018). 한국 청소년 삶의 질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29(1), 195-217.
안선정, 이현철, &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1(2), 77-91.
양계민, 강경균, & 김주영.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V:CHD총괄보고서(연구보고 17-R12).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 정소희. (2011).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12.
양계민, 장윤선, & 정윤미. (2020).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584.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 한지형. (202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51.

연보라.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V: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경화. (201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9), 83-97.

오금숙, & 김윤정.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 부부친밀감, 생활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건강학회지, 3(1), 15-25.

오성배. (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 12, 33-56.

유봉애, & 옥경희. (201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 511-538.

유여진, & 황정하.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9(1), 355-380.

유창준, 김건태, & 임상호.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0(5), 19-26.

윤예린, & 오범호. (2020). 다문화멘토링 사업 참여가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31(4), 1-16.

이경희. (2011). 차치료의 내담자 심리 환경 분석을 위한 욕구위계 이론 수용의 의의. 차문화산업학, 20, 1-26.

이기봉, 박일혁, & 진성룡. (2014). 스포츠활동 특기적성교육이 청소년의 정서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4), 99-111.

이미애, & 정회욱. (2004).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교육연구, 16(17), 123-137.

은선민, 이수현, & 이강이.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 유형화: 유형 예측요인과 유형별 심리·사회적응. 한국청

소년연구, 30(2), 177-211.
이민경, & 이수정. (2011). ‘다문화 아동·청소년’정책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 정책용어와 방향성에 대한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35(2), 1-37.
이민경. (2010). 다문화 가족정책의 전개: 진보 혹은 후퇴?. 월간 복지동향, 138, 9-12.
이상열. (2014). 다문화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6(5), 139-167.
이영희, 심영미, & 강갑원. (201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강원도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2(2), 129-148.
이윤정. (2019).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교사・친구지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 1197-1210.
이재경, & 조혜정. (2012).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0, 41-71.
이준규. (2012). 한국 다문화정책의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57-282.
이지현, 진수진, 주현정, & 조연실. (201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부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87-98.
이효경, & 손은령. (2019). 전환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6), 871-892.
인효연. (2017).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지각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0), 459-482.
임정기. (2013).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변화

궤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8, 217-240.
전리상, & 조홍중. (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융합적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6), 359-368.
정다정, & 유두호. (2021). 세계화 시대의 지방정부와 정책 확산: 다문화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5(4), 87-108.
정미렴. (2012).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 의거한 노인요양시설 치유환경요소의 위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1), 240-247.
정용호. (2017). 정부 지원 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2017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정진우. (2014).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5(2), 103-116.
정하나. (2016). 다문화 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인과 거주외국인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2), 83-112.
조명호, 김정오, &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조성연, 김혜원, & 김민. (2011).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9(3), 87-98.
조성희, & 박소영. (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 정책지원 이용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2), 182-203.
조승연. (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정책 참여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6, 187-212.
조은정. (2014).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7, 103-126.
조호대. (2012).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경찰의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Crisisonomy, 8(5), 213-226.
최진아, & 이숙. (1996).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관련변인. 생활과학연구, 6, 1-8.
하여진. (2021).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효과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4(3), 1-18.

하혜숙. (201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사의 편견 분석 연구. 상담학연구, 12(6), 2065-2083.
황매향, 하혜숙, 강지현, & 여태철. (2014).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발달. 초등상담연구, 13(1), 71-96.
황여정, & 김경근. (2006).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 181-203.
황정미. (2007). 한국 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기타 자료

교육부. (2021). 2021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교육부. (202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여성가족부. (2010).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
여성가족부.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2021:중·고등학생.

3. 국외 연구

Arditte, K. A., Morabito, D. M., Shaw, A. M., & Timpano, K. R. (2016). Interpersonal risk for suicide in social anxiety: The roles of shame and depression. Psychiatry research, 239, 139-144.
Banks, J. A. (2009). Multicultural education: Dimensions and paradigms. In The Routledge international compan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9-32.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 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Bennett, C. I. (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Boston. Pearson Education.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615-631.

Bierman, K. L. (2011). The promise and potential of studying the "invisible hand" of teacher influence on peer relations and student outcomes: A commentar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297-303.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Bronfenbrenner, U. (1989). A Response to Lawton's Theoretical Challenge. Social structure and aging: Psychological processes, 85.

Bronfenbrenner, U. (1992). Ecological systems theory. Jessica Kingsley Publishers.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1101-1113.

Buhs, E. S., & Ladd, G. W. (2001). Peer rejection as an antecedent of yo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 examination of mediating processes.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550-560.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2), 117.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Diener, E., Oishi, S., & Lucas, R. E. (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403-425.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

Furnham, A., & Cheng, H. (2000). Perceived parental behaviour, self-esteem and happines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5(10), 463-470.

Harper, F. D., Harper, J. A., & Stills, A. B. (2003). Counseling children in crisis based on Maslow's hierarchy of basic need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5(1), 11-25.

Henwood, B. F., Derejko, K. S., Couture, J., & Padgett, D. K. (2015). Maslow and mental health recovery: A comparative study of homeless programs for adul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 42(2), 220-228.

Holder, M. D., & Coleman, B. (2009). The contribution of social relationships to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3), 329-349.

House, J. S. (1983).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Contemporary Sociology, 12(3), 329.

Huebner, E. S. (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 3-33.

Koontz, H. (1980). The management theory jungle revisit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5(2), 175-188.

Kumar, S. P. K., & Dileep, P. (2006). Academic life satisfaction scale and its effectiveness in predicting academic success. Retrieved from ERIC database.

Maslow, A.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Maslow, A.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2nd ed.). New York: Harper & Row.

Medle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A caus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55.

Meyer, C. (1983). Clinical social work in the eco-systems perspectiv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Ryan, D. P. J. (2001).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s theory. Retrieved January, 9, 2012.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

Saha, R., Huebner, E. S., Suldo, S. M., & Valois, R. F.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Child Indicators Research, 3(2), 149-165.

Schalock, R. L. (1996). Quality of life: Application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Vol. 2). Aamr.

Suldo, S. M., & Huebner, E. S. (2006). Is extremely high life satisfaction during adolescence advantageou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8(2), 179-203.

Wan, C. K., Jaccard, J., & Ramey, S. L.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family struc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2-513.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1972 to 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Abstract

#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 The Moderating Effect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nvolvement

KIM, JOOUI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ree years of panel data from the 7th wave(2017) to the 9th wave(2019) were used in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is study, family support and friend support among th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family support had a greater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than friend support. Second, whether or not to benefit from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was found to have a pur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s for whether or not to benefit from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family support, and friend support and teacher support showed a statistically in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family support allev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implications of the abov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age of adolescents increases, there is a tendency that life satisfaction decreases eve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Second, it suggests that families and schools, the closest environments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have direct contact and continuous interaction, affecting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Third, it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presents the direction in which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should proceed.

key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nvolvement

*Student Number* : 2021-27614